

제2608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전기차 콘셉트카 '제네시스 엑스' 공개 11



손병두 "유니콘기업, 국내 상장 돕겠다" 17

코스피(31일) 3061.42 (-0.58P) 코스닥 956.17 (-1.09P)
환율(달러당 원화) 1131.80 (-1.8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133% (-0.022%p)

직원은 '고용불안'·고객은 'AS불안' 뒤숭숭한 'LG폰 철수'

LG, 매각 늦어지며 "재검토"만 반복
협력사 수백 곳도 '도미노 폐업' 공포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재검토 계획을 밝힌 지 두 달이 넘도록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면서 MC(모바일 커뮤니케이션)사업본부 직원들과 협력사, 소비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11면

업계에선 매각이 아닌 철수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LG전자는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4월 5일 이사회를 열고 철수 혹은 매각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철수로 운영 방침이 정해지면 3700명에 달하는 MC사업본부 직원들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매각 쪽으로 기울더라도 직원들은 계열사 이동이나 아예 회사를 옮겨야 하는 혼돈 상황에 빠지게 된다.

직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등 두 달 넘게 혼란에 빠진 상태다. 이미 내부에선 사무직 노조에 가입하면 지방으로 좌천된다는 등의 흥흥한 소문도 돌고 있다.

MC사업본부 한 직원은 "고용은 유지한다고 하지만 불안하지 않다면 거짓말 아니겠느냐"며 "내부에서도 이직을 준비하거나, 언제 결론이 나올지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등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LG전자는 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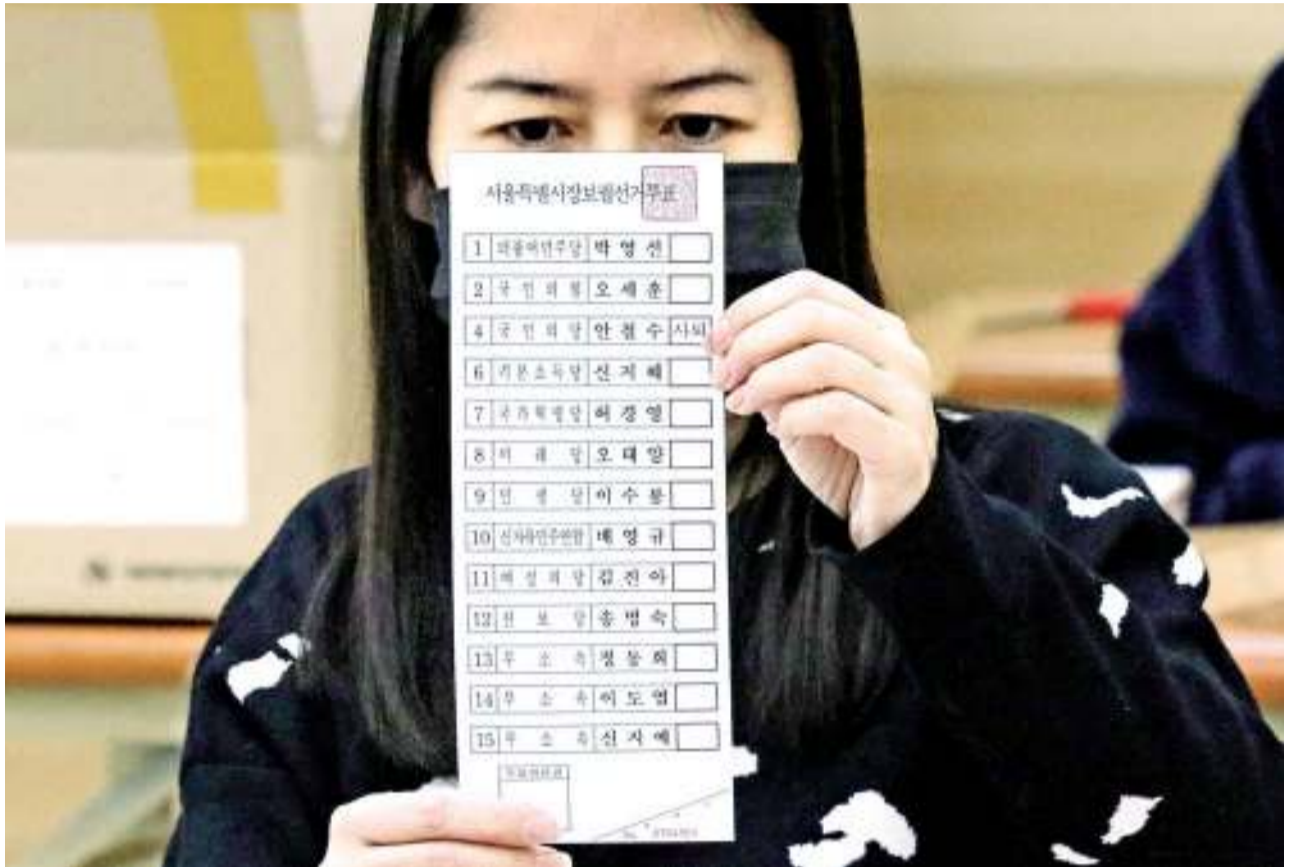
기존 스마트폰 재고를 공짜폰 수준으로 팔고 있다. 향후 사업 철수 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협력사 역시 존폐 기로에 섰다. 모바일 사업 철수가 현실화할 경우 피라미드식의 재하청 구조라서 1차 협력업체부터 2차, 3차로 이어지는 도미노 피해가 우려된다.

1차 협력사 코스닥 기업 일하는 LG전자가 스마트폰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난해 거래가 중단됐는데,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90% 가까이 급감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건 수백 개 협력업체에 절체절명의 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방향성 없이 재검토 계획을 발표해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협력사와 근로자,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투표용지 검수하는 선관위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31일 서울 용담동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사진공동취재단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후 2년뒤 합병"

우기홍 사장 간담회 "통합 시너지 年 4000억, 인력 구조조정 없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합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기홍(사진) 대한항공 사장은 31일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계획(PMI) 관련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17일 산업은행에 제출한 PMI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 사장은 "양사의 통합을 위해서는 안전운항체계 준비, IT 시스템 통합, 조직 및 회계제도 통합, 상용 고객 우대제도 통합, 글로벌 얼라이언스 이슈 해결 등 수십 가지의 프로젝트가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며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통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필수적으로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9개 국가 중 터키 당국으로부터 2월 4일 승인을 받았으며 그 외 국가에서도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이다.

기업결합신고가 모두 완료되면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우 사장은

"이 경우 한진칼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며 이후 2년 정도의 통합 준비를 거쳐 합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합 LCC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통합 대한항공의 산하에 두는 방안, 현재 진행어와 유사하게 한진칼 산하에 두는 방안 등 두 가지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 LCC의 본사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는 (말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양사 자회사 중 지상조업사와 IT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 및 아시아나IDT는 각각 하나로 통합

합할 계획이다.

다만 항공 예약·발권 시스템을 여행사에 제공하는 토포스, 아시아나세이버에 대해 "양사는 각각 별도의 해외 합작 파트너사가 있어서 계약 상대방과 협의해 독립적으로 유지·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여객 및 화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고객 편의 향상 이 기대된다며 통합 후 코로나19 영향의 완전 회복을 가정할 경우 추산 시너지 효과는 연간 3000억~4000억 원 정도로 예상했다.

통합 후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 우 사장은 "양사 중복 간접 인력은 1200여 명인데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음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재배치로 구조조정 없이 노조와 협의해 단체협약도 무리 없이 승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이주혜 기자 winjh@

고밀개발로 2.5만호 공급한다지만 신뢰 잃은 정부, 사업추진 난항 예고

금천·도봉·영등포·은평 21곳 선정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서 예고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차 후보지 21곳을 31일 공개했다. 하루 전날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을 발표한 데 이어 연이틀 정부발(發) 공공 주도형 주택 공급 확충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4면

하지만 정부 바람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주택 개발 사업이 순항할지는 의문이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공공 주도 사업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데다 서울시장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 모두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상황이라 사업 후보지 내 주민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등 총 2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구 4곳, 은평구 9곳이다. 총공급 규모는 약 2만5000가구다. 구체적으로는 역세권에 선 7200가구(9구역), 준공업지역 500가구(2구역), 저층주거지역에선 1만7500가구

(10구역)가 공급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2·4 공급 대책 이후 두 달 만에 총 341곳의 후보지가 접수됐다"며 "정부는 이 중에서 입지 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과 사업성 요건(토지주 추가이익·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21곳을 1차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주거단지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정부는 토지 소유주의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사업 완주를 위한 후보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후보지역 내 주민들이 정부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 최근 LH 직원 땅 투기로 사업을 주도해야 할 LH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공재개발 등 다른 공공 주도 사업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이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서울 내 공공 주도 주택 사업 완료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영욱 기자 dragon@

오늘부터 75세 이상 화이자 접종 '백신휴가' 도입

노인시설 입소·종사자로 확대접종 이상반응엔 권고 휴가 실효성 의문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입소·종사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접종기관을 제외한 46개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화이자 백신이 공급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예방접종을 받는다. 다른 질병청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정 청장은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백신을 맞을 예정이다.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31일 "1일부터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된다"며 "동시에 주거복지, 주·야간, 단기보호 등 노인시설 입소·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접종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백신 휴가도 시행된다. 접종 다음 날 하루, 이상반응 지속 시 추가 하루가 원칙이다. 다만 '의무 휴가'가 아닌 '권고 휴가'란 점에서 민간기업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의해 협조를 이끌 계획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500명을 넘어섰다.

특히 보육·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늘고 있다. 12시(정오) 기준으론 서울 강북구 어린이집(총 13명), 광진구 중학교(총 11명), 세종시 초등학교(총 11명), 강원 원주시 어린이집(총 13명) 등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이에 중대본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고, 8일부터 예방접종을 개시하기로 했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의 교직원과 보건교사 1만5000명을 우선 접종하고, 나머지 보육교직원 28만4000명은 2분기 중 접종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文대통령 “기업 의견 우선 청취, 상의와 함께 해법 모색”

대통령 ‘상공의 날’ 8년 만에 참석
최태원 회장 “백신 접종 시작되고
경기 개선...기업가 정신 가장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개최한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따뜻한 자본주의’를 강조했다. 대통령이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인이 혁신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단기매출,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계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최 회장을 향해 “대한상의를 통해 수집되는 기업 의견

을 최우선적으로, 정례적으로 협의해서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문대통령에게 “친히 외주셔서 감사하다”며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하게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사업보국을 기업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도약

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됐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혼돈 속에서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 버텨왔다”며 “그 뒤에는 정부의 K방역, 헌신적 의료진, 국민의 자발적 동참과 함께 제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 온 상공인들의 헌신과 노고도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생존 문제를 맞닥뜨린 와중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정과 공생을 위해 기꺼이 무거운 짐을 나눠 든 수많은 상공인이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상공인들이 서로에게 힘이 된다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믿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상을 향한 회복이 시작된 만큼 기업의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올해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경제 재기의 조짐이 보이면서 기나긴 터널의 끝에 희미한 빛들이 보이는 것 같다”며 “일상을 향한 회복의 여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가 기대하

는 기업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인이 혁신 주체로서 경제의 원동력이 된다”며 “길을 모색하면 길을 찾게 되고 그 길이 모두의 안녕을 향할 때 상공인들은 정부 지원과 국민 격려로 경제의 힘찬 반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협력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상공인 여러분들이 우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와 좀 더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다 같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공의 날 행사에서 최 회장은 기념사를 테드(TED) 형식으로 해 메시지 전달에 초점을 맞췄고, 사회자 대신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이 동영상에 나와 최태원 회장을 소개했다. 또 올해 최 회장과 함께 서울상에 합류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정일환 기자 whan@ 김대영 기자 kdy@

불황 끝나나... 제조업 호조·서비스업 반등

광공업생산 4.3%↑ 기업심리 9년 8개월 만에 최고

국내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공업생산은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서비스업생산은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통계청은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2월 전산업생산이 1월보다 2.1% 증가했다고 밝혔다. 광공업(4.3%)과 서비스업(1.1%)이 모두 늘었다.

광공업생산 증가는 주로 반도체, 화학제품 등 호조에 기인했다. 제조업 관련 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였다. 생산이 4.9%, 출하는 2.2% 각각 증가했다. 내수 출하와 수출출하가 모두 증가한 가운데, 재고율은 1.8%포인트(P) 하락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7.4%로 4.2%P 급등했

다. 2014년 7월(77.7%) 이후 6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부진을 지속하던 서비스업 생산도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에서 20.4% 급증했다.

다만 소매판매는 0.8% 줄며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설비투자도 2.5% 감소했다. 통계청은 1월까지 이어진 증가세가 일시적인 조정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어윤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브리핑에서 “전체 경기는 좀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 등 광공업 호조에 힘입어 동행지

수 순환변동치는 1월보다 0.3P 상승하며 1개월 만에 다시 증가로 전환됐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P 오르며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기업심리는 9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전산업 업황실적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2월보다 7P 상승한 83을 나타냈다. 2011년 7월(8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제조업은 7P 오른 89를 보였다. 김대진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수출이 좋아 제조업 BSI가 많이 올랐다”며 “비제조업 BSI도 거리두기 완화와 기온 상승에 따른 외부활동 증가로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올랐다”고 설명했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세종=김지영 기자 jye@

샤오미, 전기차 시장 진출 선언

10년간 100억 달러 투입

중국 전자기기 대기업이자 스마트폰 강자인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레이쥘 샤오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행사에서 전기차 부문에 향후 10년간 100억 달러(약 11조 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샤오미는 전기차 전문 독립 자회사를 세운다. 초기 투자액만 약 15억 달러에 달한다.

레이쥘 CEO는 “회사의 풍부한 자금 사정에 앞으로 나아갈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샤오미 전기차의 출시 시점이나 외주 생산업체 선정 여부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중국 완성차 업체 창정자동차는 샤오미 전기차 외주업체로 선정됐다는 보도를 부인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은 미국 테슬라 이외에는 스타트업 위주로 시장이 형성됐으며 샤오미처럼 대중의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는 거의 없다.

이미 시장에 진출한 니오와 리오토 샤오핑 등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은 주가 급등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테슬라는 이미 2019년 말부터 상하이에서 모델3, 모델Y를 생산하며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샤오미보다 먼저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중국판 구글’ 바이두는 지리자동차를 파트너사로 선정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THE HYUNDAI SEOUL

SOUND OF THE FUTURE

더현대서울

현대백화점이 가장 진화된 미래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여의도에 선보입니다



혁신적 공간 설계
대규모 실내 정원 사운즈 포레스트



글로벌 콘텐츠 큐레이션
12미터 높이의 인공폭포 워터폴 가든



미래형 테크놀로지
AWS(아마존웹서비스)기술 기반 무인 매장 연커먼트슈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 *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도보 5분
- *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연결
- *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디지털 자산 '진품명품 시대' NFT, 시장혁신 도화선 된다

대량 복제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블록체인 활용 고유 인식값 부여
트윗 한 줄 33억·방귀음 48만원
디지털아트 열풍 타고 거래 활발
가상 아닌 유형자산 연결 실험도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NFT 아트위크 전용 갤러리에서 한 시민이 디지털 NFT 작품을 촬영하고 있다. 뉴욕/EPA연합뉴스

#미국 뉴욕 예술가 방귀 소리 48만 원,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없는 디지털 집 5억 6000만 원, 한 줄짜리 트위터 32억7000만 원.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 시장이 불타오르면서 현대 미술에서부터 인터넷 짤방 등에 이르기까지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품목들이 '억 소리' 나는 금액에 팔려 나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NFT는 예술작품이나 인터넷상의 게시물 등 모든 것에 대해 '진품'임을 나타내는 디지털 증명서 역할을 하는데, 최근 들어 그 내재적 고유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뉴욕의 한 예술가는 자신과 친구들의 방귀 소리를 1년 동안 모아 만든 NFT 매물 '마스터 컬렉션'을 약 426달러(약 48만 원)에 거래했다. 캐나다 작가 크리스타 김이 NFT 기술을 적용해 제작한 디지털 집 '마스 하우스'는 약 50만 달러에,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의 첫 트윗 게시물 "지금 막 내 트위터 설정했음(just setting up my twttr)"은 290만 달러에 각각 판매됐다.

'물론 이러한 가격은 쉽게 이해할 수 없으며, 어쩌면 확실히 제 정신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NFT는 수 세기 동안 예술계와 기타 시장을 괴롭혀 온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WSJ는 그 잠재력에 주목했다. NFT가 가상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과 창작물을 결합함으로써 사람들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미술품 시장 등에 '컴퓨터 코드'라고 하는 객관성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NFT를 활용하면 하나의 예술작품에 관한 대량의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항구적인 디지털 기록에 포함할 수 있다.

현재까지 NFT는 전자 화상이나 음성, 동영상 파일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블록체인에 의한 소유권의 기록과 실물 작품을 연결하는 실험도 이미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NFT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려는 시도도 추진되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비플'이라는 예명으로 잘 알려진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윈클먼은 안드레스 리제너, 리릭 아나돌, 새라 루디, 카일 고든 등 같은 디지털 아티스트와 함께 야심찬 NFT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블록체인에 초점을 맞춘 자선단체 사회알파재단(SAF)이 NFT 소속 아티스트들이 기증한 작품을 경매에 부치고, 수익금 전액을 비영리 단체 '오픈 어스 파운데이션(Open Earth Foundation)'에 기부한다. 이 경매에는 NFT로 인증하는 500톤의 탄소배출량 상쇄가 포함돼 있다. 이렇게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은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존하고 삼림파괴를 막는 데 사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자사 칼럼을 NFT 경매에 올렸으며 이 칼럼은 무려 56만 달러에 팔렸다. 이는 신문 역사상 첫 NFT 판매였다. 변효선 기자 hsbyun@

NFT (Non Fungible Token)

블록체인에서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어 희소성을 지닌 가상자산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소유권·판매 이력 등의 모든 정보가 저장되며 상호 교환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삼성도 '짬' 거래 플랫폼 투자

'슈퍼레어' 시리즈A 펀딩 참여
TV·모바일 사업 시너지 기대



슈퍼레어 홈페이지

삼성전자가 제2의 비트코인으로 불리며 최근 떠오르고 있는 'NFT'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31일 삼성전자 투자 전문회사 삼성넥스트는 미국의 NTF 거래 플랫폼 업체 '슈퍼레어(SuperRare)'가 모집한 900만 달러(약 102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펀딩에 투자자로 참여했다.

슈퍼레어 측은 "불과 3년 만에 '암호화폐 예술 시장(디지털 아트)'은 이미 4억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했다"며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슈퍼레어는 성장을 가속하고, 더 많은 아티스트와 수집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과 2월 슈퍼레어의 평균 아티스트 매출은 2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번 달에는

2700만 달러에 육박한다.

삼성전자가 이 회사에 투자한 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그리고 디지털 아트 시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삼성전자는 디지털 아트 시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V와 모바일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더 프레임' TV는 '아트 모드'를 통해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는 미술작품이나 사진 등을 담아 액자처럼 활용할 수 있는데, 디지털 아트를 화면에 구현하기 최적화됐다는 평가다.

송영록 기자 syr@

콘서트 막힌 가수, NFT로 수익 창출

'코로나궤 위기' 아티스트 새 활동 무대... 관련 상품 잇따라

예술계에 스며든 NFT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라이브 콘서트를 할 수 없게 된 가수와 프로듀서들에게 새로운 수익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유명 DJ이자 EDM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3LAU(저스틴 블라우)는 최근 자신이 만들었던 앨범 '올트라바이올렛' 발매 3주년을 기념해 33개의 NFT 토큰을 판매했다. 토큰은 각각 다른 가격에 판매됐으며, 이 중 가장 비싼 토큰에는 블라우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음원의 접근 권한이 포함됐다.

NFT 경매로 그가 벌어들인 수익만 1160만 달러(약 131억 원)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추정했다. 블라우는 "과거 전혀 할 수 없던 방법을 통해 팬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이러한 방법은 기술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에는 '천재 DJ' 데드마우스(deadmau5)가 자신의 공연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화상 DJ 강연 등이 담긴 NFT팩

을 10만 달러에 팔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링크파크의 마이크 시노다와 손 멘데스, 그라임스와 같은 유명 가수들이 NFT를 통한 수익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음악기술 연구가인 체리 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음악 사업과 관련해 2만9800개가 넘는 NFT가 판매됐으며, 그 규모는 자그마치 4250만 달러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건당 평균 거래가는 1427달러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분위기에 음악업계는 NFT 시장을 진정한 팬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려 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향했던 기존의 공연이 모두 멈춘 상황에서 블라우처럼 특정 구매자만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NFT가 주는 또 한가지 매력은 아티스트 본인에게 돌아가는 수익분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과거 아티스트가 한 차례 공연을 마치면 대관료와 스태프, 음악 저작권자, 안무팀 등에 배분되는 몫이 많았다면,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된다.

고대영 기자 kodae0@

당신이 KCC 이지스입니다

KCC 이지스 2020-2021 프로농구 정규리그 우승

기쁨의 순간은 짧지만 이 순간만을 향해 달려온 선수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당신의 응원은 더욱더 깊었기에 더욱 찬란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조금 떨어져 있어도 항상 변함없이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이 영광을 드립니다

KCC

(2·4·15구역)

신길 4945가구·영등포역 2580가구·녹번 2436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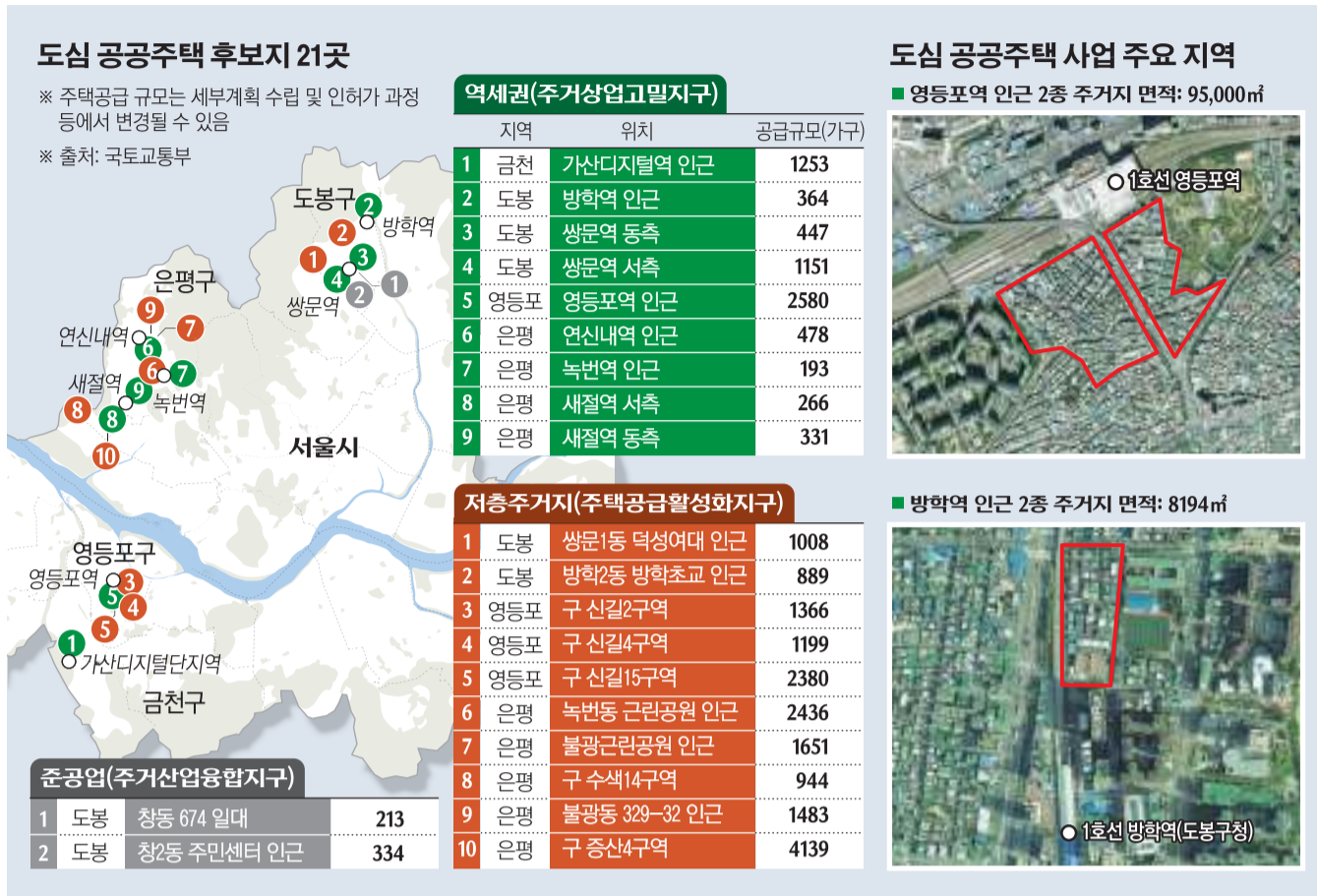
서울 고밀개발 속도전

정부가 31일 발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사업 1차 후보지는 서울의 전통적인 노후지역에서도 주로 저층 주거 밀집지에서 나왔다. 정부는 저층 빌라촌과 준공업 지역 등을 동원해 판교신도시급 수준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20년 이상 건축물 60% 입지 선정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 21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지역인 금천(1곳)·도봉(7곳)·영등포(4곳)·은평구(9곳)에 집중됐다. 지자체들이 제안한 후보지 109곳 중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제외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을 추려낸 뒤 입지 요건(규모·노후도)과 사업 가능성(토지주 추가 수익), 개발 방향 등을 검토해 21곳만 가려냈다. 특히 국토부는 후보지 입지 선정 요건 중 노후도 요건을 '20년 이상 된 건축물 6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일반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이 '20년 넘는 건물이 66.7%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기준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들은 대체로 역 접근성이 좋고 주변 개발 수준을 고려할 때 사업성은 높지만 자력 개발 동력은 사실상 상실한 곳들이다. 영등포 옛 신길2·4·15구역과 은평구 수색14구역, 증산4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신길동 저층주거지의 경우 신길뉴타운 중심부에 있지만 2014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된 곳이다. 증산4구역은 수색·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알짜 사업지로 꼽히지만 구역 해제로 개발이 무산됐다. 총 16만㎡를



판교신도시 규모 아파트촌

신길·수색뉴타운 인근 빌라촌 등 개발 동력 잃었지만 사업성 높아

민심 잃은 공공사업 '당근책'

용적률 380%, 민간의 1.4배

토지주 수익률 90% 넘을 듯

넘는 규모로 4139가구가 나올 것으로 추산된다. 1차 후보지 중 최대 규모다.

이 밖에 역세권 개발에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로 묶여 고밀 개발이 어려웠던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세권(1253가구) 일대가 포함됐다. 준공업지역으로는 과거 섬유 관련 산업 밀집지였다가 1980년대 공장 이전으로 산업 기능이 위축돼 주거지역으로 변한 뒤 노후화가 심화된 도봉구 창동 일대(총 547가구)가 지정됐다. 저층 주거지로는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2436가구), 불광근린공원 인근(1651가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당근책 제시해 공급 속도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 21곳의 용적률은 평균 380%(역세권 279%)로 올라간다. 후보지의 평균 용적률은 142%로 일반 사업을 진행할 경우 269%까지만 상향이 가능하지만, 공공사업을 통해 38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로써 추산되는 구역별 평균 주택 공급량은 1195가구가 된다. 민간 재개발로 공급되는 854가구보다 1.4배 많다.

주택 수가 늘어나고 조합원 부담이 그만큼 줄면서 토지주에 적용되는 분양가는 시세 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존 일반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는 시세

대비 약 75%다. 토지주 수익률도 일반 개발사업(60.9%)과 비교해 29.6%포인트 증가한 90.5% 수준에 달한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특히 후보지 중 연내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 지정)할 경우 민간 사업보다 30%포인트 높은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후폭풍에 주택 공급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한계권을 극복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사업 시행자는 내달부터 주민 설명회 개최와 주민 동의 절차에 들어간다. 전체 토지주의 10% 동의를 확보한 뒤 7월 중 예정지구 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도시·건축 규제 완화 및 인허가에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서울과 경기·인천·지방 광역시 등에서 접수된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고, 7월까지 4~5차례에 나눠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엔 투기 수요 차단책도 담겼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지 발표→예정지구 지정→분지구 지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거래 분석 기획단 또는 거래분석원이 예정지구 지정 1년 전(후보지 공개 이후 기간 포함)부터 분지구 확정 때까지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를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개발이면 뭐든 찬성” “공공 꺼내지도 마라” 지역 따라 온도차

지역민 반대하면 사업 진행 못해 LH, 땅투기 사태로 추진력 상실 선거 코앞인데 실효성도 의문 서울시장 후보들 민간 주도 무게

정부가 2·4·15 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차 후보지 21곳을 발표했지만 정작 사업 전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이번 1차 후보지는 지자체가 우선 접수한 지역으로 앞으로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 지역별로 사업 추진에 대한 온도차가 심한 편이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아예 공공 주도 개발을 못 믿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 주민 의견을 통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1차 후보지역 내 민심은 크게 엇갈렸다.

역세권 개발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K공인중개 관계자는 "이 주변은 소방도로도 없을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도도 높은 곳"이라며 "공공이든 뭐든 개발을 진행한다고 하면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곳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로 지정돼 고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노후도는 74% 수준이다.

반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개발사업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영등포구 신길4구역 주민 A 씨는 사업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공공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고 했다. 신길동 H공인중개 관계자는 "신길4구역이 후보지에 들어갔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이고 황당하다"며 "동네 사람들은 '공공' 자 들어간 건 무조건 안

한다는 입장이다. LH도 마음에 안 든다. 그 이상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신길4구역은 2014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뒤 노후화가 계속 진행된 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곳의 노후도는 94.9%에 달한다. 주거 정비사업이 필요하지만,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반감이 거세 주민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사업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 대상 지역을 결정한 뒤 주민 사업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LH는 최근 직원 땅 투기 사태로

도심 공공주택 정비사업을 주도할 추진력을 이미 상실했다는 평가가 많다.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큰 만큼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 주민들 입장에서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높다면 굳이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택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앞으로 사업 진행의 관건은 후보지역 내 주민 동의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DL이앤씨, 국내 첫 AWP 공법으로 플랜트 증설 완료

공사비 10% 절감, 생산성 25% 높여

DL이앤씨가 국내 최초로 선진 프로젝트 관리 공법(AWP)을 적용해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전남 여수 DL케미칼 폴리 에틸렌 증설 공사에 AWP 공법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작업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AWP는 미국 건설산업연구원과 캐나다 알버타주 건설발주자 협회가 함께 개발한 공사 관리 시스템이다. 공사 전체 공정을 세분화하고 이를 하나의 표준화된 플랫폼으로 통합해 공사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



전남 여수 DL케미칼 폴리 에틸렌 공장 전경.

리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AWP 공법을 적용할 경우 최대 10%의 공사비용을 아끼고 작업 생산성을 25% 높일 수 있다.

DL케미칼 폴리 에틸렌 플랜트 공사는 기존 공장에 설비를 추가하고 새로운 처리 시설을 도입해 생산 용량을 연산 16만 톤에서 41만 톤 규모로 증설하는 공사다. 공사 부지가 좁고 기존 설비 중단 기간을 최소화해야 하는 까다로운 공사로 철저한 공정관리가 요구됐다.

유재호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장은 "AWP 공법은 글로벌 석유화학 회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선진공법으로 다수의 국내 건설사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랜트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AWP 공법을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용욱 기자 dragon@

LH, 임대단지 상가 384호 '사회적약자' 공급

2017년부터 618호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과 '동지 내몰림' 방지를 위해 LH 임대단지 내 희망상가 384호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LH 희망상가는 청년·경력단절 여성·사회적 약자에게 시세 이하로 장기간 창업 공간을 제공한다.

LH는 2017년 서울 가좌 행복주택 내 임대상가 6호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희망상가 618호를 공급했다. 저렴한 임대료와 풍부한 배후수요(입주민)를 바탕으로 창업 희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는 남양주 별내 A-24BL 등 전국

임대주택 84개 단지에서 총 384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경력단절 여성·사회적 약자에게는 시세의 50% 수준(공공지원형 I),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시세의 80% 수준(공공지원형 II), 기타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유형(일반형)은 낙찰금액으로 공급한다. 공공 지원 유형(I·II)은 창업(사업) 아이템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점 자격 상실 등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재계약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인상률이 결정된다.

이재명 기자 lly0403@

30km 떨어진 서울 살아도 경기도 현지지주로 보상 우대

〈글 쓰는 순서〉

1. 신도시 개발 이대로 좋은가
2. '눈먼 돈' 토지 보상금
3. '도심 정비-택지 개발' 선순환 고리 만들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꾼들이 노리는 표적은 결국 보상금이다. 투기꾼과 실사용자를 가리지 않는 토지 보상체계는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투기꾼을 끌어당겼다. 투기로 돈을 벌 수 없도록 하는 차등 보상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마다 투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전면 강제수용 체계 때문이다. 강제 수용은 신도시 예정지 안에 있는 땅을 공공이 모두 수용·매수하는 방식으로, 한번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수도권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주택 건설이 시급했던 개발시대엔 전면 강제수용 방식이 효과를 낼 수 있었다.

문제는 강제 수용 체계에선 토지 보상비가 말 그대로 '눈먼 돈'이 된다는 점이다. 투기꾼 땅도 예정지 안에만 있으면 가리지 않고 공공에서 사줄 수밖에 없다. 개발 예정지 토지를 매입한 후 시간을 끌면서 보상가격을 올리는 '알박기' 수법이 등장한 건 이런 배경에서다.

투기성 수요가 올린 보상비는 결국 공공 부담으로 돌아간다. 영국·일본 등 외국에서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했던 이이다.

과거 나왔던 토지 투기 예방책도 차츰 무뎠다. 노무현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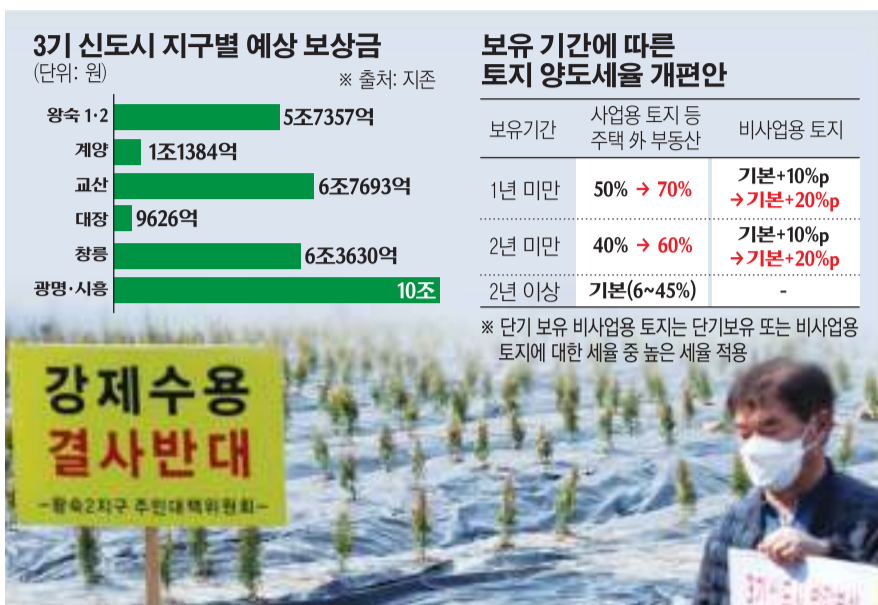
정부, 대규모 신도시 개발 위해 토지 전면 강제수용 체계 고수 개발지역 '꾼들의 먹잇감' 전락

LH 사태로 부동산 민심 들끓자 뒤늦게 '차등 보상제' 손봤지만 현지인 요건은 보완 안해 '불씨'

(실수요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최고 60%까지 증과했다. 부재지주가 개발 예정지 땅을 투기해 차익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2015년까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증과 제도는 유예됐다. 부재지주의 땅 사재기를 막을 장치가 무력화된 셈이다. 이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증과세율은 점진적 인상을 거쳐 55%까지 높아졌지만 노무현 정부 수준에 못 미친다.

보상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현지인 요건도 완화됐다. 과거엔 개발 예정지에서 반경 20km 이내에 거주해야 현지인으로 인정했지만, 2015년 대상 범위가 30km로 넓어졌다. 서울에 살면서 경기 광명이나 시흥에서 농사 짓는다고 우겨도 현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토지 보상 방식을 개편하기로 한 것은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단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세 세율을 70%까지 증과하기로 했다. 대토 보상(현금 대신 집이나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할 때도 단기 보유자는 협



10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한 시민이 LH를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의 양도인 택지(1000㎡ 이상 토지주에게 보상 협조를 대가로 주는 단독주택 용지나 아파트 입주권)를 부여할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토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지금으론 정부가 손볼 수 있는 보상 체계 개편이 제한적"이라며 "세금을 통해서라도

보유 기간에 따른 토지 양도세율 개편안

보유기간	사업용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	비사업용 토지
1년 미만	50% → 70%	기본+10%p → 기본+20%p
2년 미만	40% → 60%	기본+10%p → 기본+20%p
2년 이상	기본(6~45%)	-

* 단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는 단기보유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중 높은 세율 적용

리도 있다. 토지 보상 전문가인 신태수 지존 대표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인 것은 맞다. 정부 원안대로 가면 투기꾼은 물론 실수요자까지 영향권에 들 것"이라며 "거래 절벽 등 규제 부작용이 전국적으로 야기될 수 있다. 투기는 소수가 했는데 피해는 온 국민이 입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 예비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지금 같은 세율을 국지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투기 수요는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며 "핀셋 규제"를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토지 보상 체계 전반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투기성 수요는 차단하면서 원주민에 대한 보상은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공공택지 사업엔 이주자 택지(주택을 수용당한 거주자에게 주는 주택 용지) 등 원주민 우대 체계가 있지만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공익사업도 많다. 토지 수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뿐 아니라 생활권 보장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토지 보상 시스템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부동산 시장 보상금 유입 막으려 공동주택 용지 포함 원주민에게 제도설명 부족 불법 전매업체까지 '기승'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토(代土) 보상(토지 수용 대가로 인근의 토지를 주는 것)' 제도가 또 다른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불법 전매업체까지 개입해 대토 보상금을 노리고 있다.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은 대규모 필지를 사들여 한 사람당 1000㎡ 이상 지분을 쪼개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 이들이 대토 보상을 노리고 신도시 예정지 내 땅 투기를 했다고 의심하는 이유다.

현행 보상제도에서 1000㎡ 이상 토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협의양도인 택지(토지 수용 대가로 받는 단독주택 용지나 아파트 입주권)를 받을 수 있어서다. 협의양도인 택지는 다른 대토와 달리 전매가 가능해 수익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투기 혐의자 대부분은 보상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이런 규정을 악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대토 보상 확대는 앞선 1~2기 신도시와 구별되는 3기 신도시만의 특징이다. 이전에는 대토로 상업 용지와 단독주택 용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3기 신도시에선 공동주택 용지로 확대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폭도 15%에서 40%로 확대됐다. 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 땅과 집을 줘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000년대 중반 2기 신도시 보상금이 풀리면서 서울 강남 집값을 끌어올린 데 따른 교훈이다.

문제는 대토 보상 제도를 꺾고 있는 투기 세력과 달리 원주민에겐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의장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층이나 농민이 많아 대토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데 LH 등 시행자가 관련 설명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구별 주민대책위원회가 자체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선 LH가 대토 관련 설명도 없이 대토 신청을 받으려다 주민 반발로 무산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보상대행업체까지 끼어 들고 있다. 주민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대토 보상을 전매하거나 신탁할 것을 종용하는 방식이다. 일부 LH 퇴직자도 보상대행업체를 차리고 보상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대토 보상을 전매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민섭 도시정책학회장은 "대토 보상에 필요한 기준을 재정비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편법으로 대토 보상을 받으려는 시도엔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 참여권 보장을 통해 대토 배분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보상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식후 3정으로 지키는 대사 건강

10년 동안 100만* 고객이 선택한 녹차건강기능식품

메타그린 골드



한 번만 경험해보면 꾸준한 습관이 되는 메타그린 골드, 지난 10년 동안 100만* 고객의 선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을 연구하여 설계된 녹차 카테킨이 체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 가볍고 원활한 대사 리듬을 완성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식습관에 메타그린 골드를 더하세요.

*2012년 출시부터 2021년 2월까지 메타그린 누적 구매 고객수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바이탈뷰티

美 인권보고서 ‘조국 비리·박원순 성추행’ 담았다

“윤미향 사기·황령혐의로 기소” 대북전단 살포 제한 비판 北 인권, 코로나 팬데믹後 더 악화·中 소수민족 학살 맹공

미국 국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내놓은 첫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조국 전(前) 법무부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더욱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 보고서)’는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로 △부패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형사상 명예 훼손법의 존재 등을 꼽았다.

인권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부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행위에 가담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재산 축소 신고 논란으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사례를 소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등 가족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또한 지난해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북한 관련 주요 내용

- ※출처: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
- 1 부패·투명성**
 - 김홍걸 의원 재산 축소 신고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서 제명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년 연속 부패 사례로 언급
 - 윤미향 의원 작년 9월 기소 소식 소개
 - 2 성폭력**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거론
 - 3 명예훼손죄**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지난해 8월 유죄 판결
 - 4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 등 탈북민 단체 활동 제한 지적**
 - 5 군대 내 동성애 불법 규정할 법률**

북한

- 1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과도한 통제로 인권 상황 더 악화**
- 2 불법적인 살인파고 등 207건 넘는 인권문제 지적**

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당시 업무상 사기, 횡령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인권보고서는 성폭력 부문에서도 여권 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성희롱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으며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 등이 1년 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원순과 오거돈을 언급했다.

명예훼손죄 부문에서는 “정부와 대중이 명예훼손을 폭넓게 규정하고 처벌하는 명예훼손죄를 이용해 공론화를 제한하고 언론과 개인의 표현을 침해하거나 검열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명예훼손으로 지난해 8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한국 정부가 일부 비정부기구(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의 북한 편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과도한 통제로 북한 주민뿐 아니라 외국 외교관이나 비정부기구(NGO),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인물이 막히면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동 제한으로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지원 상황을 감시하는 해외단체들의 활동도 제한되면서 북한에 대한 정보량도 감소했고,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 수도 현저히 줄었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적했다.

북한 인권보고서 자체는 내용 면에서 2019년도 보고서와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 유린 실태 관련 내용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중국을 겨냥한 날 선 비판도 있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이슬람교를 믿는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해 집단학살과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홍콩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국제 서약에 반하는 정치적 자유와 자치권을 조직적으로 파괴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美서 내일 한미일회의·中서 3일 한중회담 ‘불붙은 외교전’ 한국은 속내 복잡

美 ‘3각 공조’ 강조 속 중국 견제 中 ‘악한 고리’ 한국 공략 가능성



정외용 외교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사실상 같은 시기 미국에선 한·미·일 3자 안보실장회의, 중국에선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려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충돌한 뒤 이뤄지는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회동이다. 시차를 고려하면 거의 비슷한 시각 진행될 예정인데, 한국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31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장관과 한·미·일 안보실장 협회가 2일(현지 시각) 개최된다고 밝혔다. 정외용 장관은 3일 중국 푸젠성 사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공통 의제도 모아진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양자 협력과 북핵 문제는 물론 미·중관계 등이 거론된다.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도 북핵 문제 대응은 비롯해 중국을 겨냥한 협력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속내가 복잡해진 까닭으로는 참

가국 구성상 미·중관계와 관련해 두 회의에서 상반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 때문이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중압박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이 미국과 밀착하는 상황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미·일 3자 안보실장회의에서 미·일은 한국에 대해 대중 압박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을 촉구할 모양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더욱이 한·미·일 3각 공조를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형국이다. 반면 중국은 ‘악한 고리’인 한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분위기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외교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미·중 갈등이 북핵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우려하고 있다.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일 때 때문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친후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앞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

‘부동산 민심’에 고개 숙인李

LH사태 대국민 사과… “내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 대안 제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여권에 대해 선거약대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망투기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사태에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며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결연한 노력은 부동산 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위한 것으로 근본적 주거복지정책이 될 수 없다”며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를 추진하는 등 맞춤형 대책이다.

이 위원장이 LH 사태 사과에 국가책임제라는 대안을 던진 것은 현재의 여론 악화가 LH 사태는 촉발제일 뿐 시간 쌓여 온 부동산 정책 불만이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LH 사태 대응의 경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그 이후 대안을 제시해 민심을 돌리려는 것이다. 또 이 위원장은 재보궐 선거에 대권가도의 명운을 건 처지에 앞장서 여론을 수습하고, 나아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뒤집는다는 지적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총선 때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공언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사실관계가 틀린 반박을 해 급히 정정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김윤호 기자 uknow@

뭣, 시민단체 만나 ‘정책 공조’

거리 유세 나선 김종인 “전폭적 지지 아끼지 말아 달라”

4·7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시민단체와 간담회에 집중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며 오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31일 오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울시약사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정책건의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어 충청향우회 회장단 간담회, 서울지역 장애인단체 간담회, 한국노총 서울본부 간담회를 통해 시민단체와 만남을 이어갔다.

오 후보는 선거 일주일 전 각종 간담회를 진행하며 유리한 흐름을 굳히는 모양새다. 시민단체와 만나 정책을 주고받으며 표심을 더 얻겠다는 의도다. 특히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중소기업인을 돕겠다고 한 만큼 관련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가 간담회에 집중하는 동안 김 위원장은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동작구 등을 찾아 오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현명한 서울시민께서 반드시 오 후보를 당선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오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말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편한한 삶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시민의 마음이 평가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본다”며 “이 정부가 그 정도로 일반 시민으로부터 동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준상 기자 jooon@

“文 잘못했다” 64% 긍정평가 2배 넘어

오세훈, 박영선에 23.8%P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2배 이상 넘어섰으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31일 리얼미터가 YTN·TBS 의뢰로 29~30일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1039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관해 묻은 결과 ‘잘못했다’는 답변이 31.6%, ‘잘못했다’는 응답은 64.1%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를,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하며 수치는 2배 이상 벌어졌다. 이는 장기간 부동산 정책 실패론이 현 정권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까지 더해져 민심이 더욱 돌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앞선다는 결과도 나왔다. 두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묻은 결과 오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55.8%였다. 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2.0%에 그쳤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3.8%포인트다.

아울러 리얼미터가 YTN·TBS 의뢰로 28~29일 부산 거주 시민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조사에서는 박영준 국민의힘 후보가 51.1%, 김영춘 민주당 후보가 32.1%의 지지를 받았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박 후보가 60.6%, 김 후보가 26.2%였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대한민국 보험의 First & Next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출범

보험업계 최초 디지털 보험설계사
LIFE MD 런칭

생보업계 최초
보이스피싱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보험금 지급 능력 최고 등급 AAA
13년 연속 획득

금융기업 최초
한화생명 e sports 창단

보험업계 최초 핀테크 센터
DREAMPLUS 63 오픈

생보업계 최초 태블릿PC 전자서명 시스템
Smart Planner 도입

생보업계 최초 베트남 진출
최다 해외 국가 진출

한화그룹 편입

보험업계 최초
계약자 건강진단 서비스 제도 도입

생보업계 최초
FP출신 여성임원 배출

생보업계 최초
계약자 이익배당 실시

대한민국 랜드마크 63빌딩
아시아 최초·최고층 준공

대한민국 최초 생명보험사

한화생명에는
수많은 처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처음,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 보험의 미래를 그려갑니다

고객의 삶 더 가까이에서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할
대한민국 보험의
First & Next 가 되겠습니다



한화생명은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판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1년 4월 1일, 분할 신설법인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출범합니다.



<1인당 39만원>

2035년 항공택시로 서울서 대구까지 1시간에 간다

정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로드맵' 확정

항공택시가 2025년부터 상용화되고 2035년에는 5인 가족이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도심항공교통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청사진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기술로드맵은 지난해 6월 발표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UAM(Urban Air Mobility)을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UAM이 새로운 교통수단인 만큼 초기(2025-2029년), 성장기(2030-2034년), 성숙기(2035년-) 3단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초기인 2025년에는 서울 시내에서 공항을 가는 정도로 시작하지만 2035년이 되면 배터리 용량 증대 및 기체 경량화에 힘입어 비행 가능 거리도 300km(서울-대구 정도)로 증가하게 되고 속도도 2025년 150km/h에서 300km/h로 빨라진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이면 주파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현재 KTX로 서울에서 동대구까지 가려면 1시간 50분 정도가 걸린다.

또 자율비행, 야간운항, 이착륙장 증설에 따른 노선 증가와 기체양산체계 구축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가 요금 현실화로 이어져 교통수단으로서의 대중화가 가능해진다. 초기에는 운임이 3000원(1인, km당)으로 높지만 2035년부터는 1300원이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기체 및 승객 안전성 확보 기술을 최우선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4년후에 서울시내~공항 상용화 배터리 용량 늘리고 기체 경량화 비행 가능거리 300km로 늘릴 것 저소음·저탄소 장치 개발도 포함

특히 저소음·저탄소 등 수용성 높은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연료를 통한 대기오염감소, 저소음 추진장치 등을 개발한다. 또 글로벌 UAM시장에서의 가격경

쟁력 및 사업자의 운영 수익성 확보를 위해 기체·부품 양산 및 정비기술과 승하차 시간 단축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간소화된 보안검색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날 정부는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애플리케이션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 단지가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입지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자동차업계 탄소중립협의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수소차 성능 2025년 내연차 '훌쩍'

부품사 1000곳 '미래차 전환' 지원 사업계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아 2025년까지 전기차·수소차의 성능을 내연차 이상으로 확보한다. 또 부품기업 1000곳을 미래차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자동차 업계는 31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를 출범하고 '2050 자동차업계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동차는 탄소중립을 성장동력 창출로 연계할 수 있는 대표산업"이라며 "자동차 탄소중립 5대 정책방향을 통해 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연내 수송 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수립한다. 완성차 및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전환 설비 투자는 공장 신증설 없이도 외국인투자·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외투 기업 및 부품업체 전용 미래차 전환 신규 R&D 등을 추진한다.

특히 2050년까지 전기차·수소차의 성능을 내연차 이상으로 확보하고 이산화탄소 재활용, 그린수소 등 4대 챌린지 과제와 e-퓨얼(e-fuel, 이산화탄소와 청정수소를 합성해 생산한 청정 합성연료) 등 다양한 감축수단과 방법에 대한 R&D를 중점 지원한다. 부품기업 1000곳을 미래차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사업 재편 등을 지원하고 금융·기술·공정·인력 등 지원수단도 지속 확충한다. 아울러 자동차 업계는 탄소중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내연기관차의 고효율화, 하이브리드화를 통해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수준의 전기차·수소차 공급과 탄소중립 연료 적용을 병행해 탄소중립을 추진한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공정위 조사 방해한 애플코리아 검찰 고발

'인터넷 끊고 출입 저지' 과태료 3억

애플코리아(이하 애플)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인터넷을 끊고, 공정위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애플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 및 전직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16일부터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간섭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애플 사무실을 현장조사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무실 내 인터넷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1차 현장조사 마지막 날인 6월 24일까지 복구하지 않았다.

2차 현장조사가 벌어진 2017년 11월 20일에는 당시 애플 상무 A씨가 보안요원과 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현장 진입을 막았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시작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애플이 이동사 3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제재안을 2018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제재에 애플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애플 측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 왔으며 애플과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향후 진행 과정에서 실제적인 진실을 관계 당국과 공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시니어 품격을 위한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4월호 발매

COVER STORY 장수의 과학

- PART 1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오늘과 내일
- PART 2 의료의 미래, 스마트 병원
- PART 3 인공지능 트레이너를 만나다
- PART 4 잠 못 드는 밤, '슬립테크'가 온다
- PART 5 푸드테크의 유망주, 로봇
- PART 6 반려동물 건강도 AI로 똑똑하게

신라보가 만난 사랑

멈추지 않는 도전과 진심으로 하나의 장르를 만들다 대체 불가 가수 권인하

생애 속 법률 상식 아름다운 이별을 위하여

구해줘 부동산 뜨는 수익형 부동산

느린 여행 봄바람 타고 들려오는 유쾌한 노랫소리, 덕포진교육박물관

2라운드 인생을 위한 귀촌·귀농 A to Z

감성 예술! 미술관 여기 미술관 풀밭에서 소풍과 낮잠을

습기로 온 연금생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 가능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재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거미줄 친 사무실, 지붕 뚫은 주택값

미국, 코로나發 부동산 양극화

재택근무 늘면서 주택 수요 증가
주택가격지수, 1월 11.2% 상승
사무실 인기 시들, 전대로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미국의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 가격은 수요 급증에 고공행진이지만, 사무실 수요는 재택근무 확산에 급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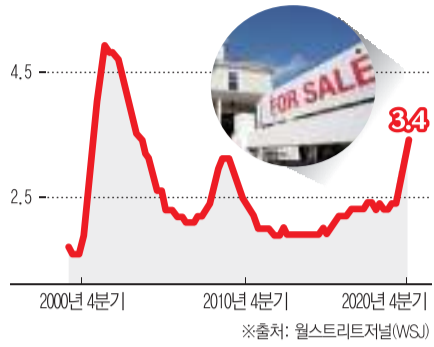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1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코어로직 케이스-실리 주택가격지수(전국, 연율)는 전년 동월 대비 11.2% 상승했다. 이는 2006년 2월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해당 지수는 미국 주요 대도시 주택 가격을 종합한 수치로, 20개 주요 도시 가격 지수 역시 같은 기간 11.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닉스가 15.8%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고, 시애틀이 14.3%로 뒤를 이었다.

이와 별개로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집계한 주택가격지수 역시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1년 이후 최고치다.

샌디에이고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집들이 날아다니고 있다”며 “구매자가 이사

미국 내 전체 사무실 가운데 전대 가능한 면적 비율 추이 (단위 : %)



할 준비가 돼 있어도 재고가 없어 집을 구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또 저금리 기조에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리파이낸싱(재융자)을 하고 이사 대신 잔류를 택하면서 공급이 줄었다고 WSJ는 분석했다. 여기에 수백만 명의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 구매 주류인 30대로 접어들고 있는 점도 가격 상승 원인으로 꼽힌다.

퍼스트아메리칸파이낸셜의 오데타쿠시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시장은 단순한 셀러가 아닌 ‘슈퍼셀러(판매자가 갑인 상황)’ 시장이 될 수 있다”며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금방 사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시장이 호황인 데 반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주춤하고 있다.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 환경이 되면서 사무실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미국 대기업들은 최근 잇따라 사무실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보통 10년 이상의 계약을 하는 만큼 세입자 신분으로 다른 세입자를 찾는 ‘전대(빌린 것을 다시 빌려주는 거래)’가 유일한 대안이다. 2017년 샌프란시스코 역사상 가장 큰 사무실을 임대한 것으로 유명했던 드롭박스도 최근 자신이 임대했던 비용보다 할인된 가격에 사무실 상당 부분을 전대했다. JP모건체이스는 올해 뉴욕 맨해튼에 있는 약 6만5032㎡ 면적의 사무실을 시장에 내놓았고, 세일즈포스와 우버, 웰스파코 등도 전대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대로 나온 사무실 공간은 1억3700만 평방피트(약 12.7km²)로, 전년 대비 40% 급증했다. 2003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또 지난 1년간 사무실 임대료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17%, 전국적으로는 1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본사를 전대한 웰스케이어 업체 아미타헬스의 토르 토르다손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임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회사 입장에서 물리적 공간이 덜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e0@

안전자산 ‘금보다 코인’

금값, 3년 만에 첫 하락

〈분기 기준〉

美 부양책·가상화폐에 상승 제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국제 금값이 최근 좀처럼 맥을 못 추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COMEX)에서 6월물 금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1.7% 하락한 온스당 1686.0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1686.96달러로,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1분기 금 현물 가격은 약 10% 내리면서, 2018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하락을 앞두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슈퍼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에 악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는 이미 전체 인구의 30%가량이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날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5.8%에 해당하는 5261만4000여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고, 28.6%인 9501만5000여 명이 최소 1차례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이달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 패키지를 통과시킨 데 이어, 2차로 3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패키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 달러화 가치와 국제 금리가 오르는 것도 금값에 악재로 작용했다. 이달 들어 달러 가치는 2.7% 상승했지만, 금값은 2.7% 하락하면서 정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의 경우에는 이날도 장중 1.77%까지 상승하면서 14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통상 물가 상승



은 금값에 긍정적 요인으로 여겨지지만, 최근 국제 금리 상승은 이자가 없는 금에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이언 맥케이 TD증권 애널리스트는 “바이든 정부의 지출 계획과 백신 노력 가속화로 인해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증시는 꽤 안정된 흐름을 보인다. 이러한 추세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계속해서 금 시장에 부담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 근본적으로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안전자산으로 더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이 금값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이크 맥클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선임 상품 전략가는 “비트코인은 많은 투자자를 위한 포트폴리오에서 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며 “금은 투자자 인식이 바뀔 때까지 가상화폐와 스포트라이트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트코인으로 향하는 자금 흐름 증가를 억제할 만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금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미얀마 부상자 구조하는 태국군. 지난달 30일 태국 매홍손에서 군인들이 미얀마 군부 공습을 피해 이곳으로 피신한 소수민족 카렌족 부상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자국 비필수 업무 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소개령을 내리고,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은 쿠데타 이후 유혈진압을 벌이는 군부에 맞서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미얀마에서 내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매홍손/AFP연합뉴스

불신만 키운 ‘WHO 코로나 기원보고서’

사무총장마저 “추가조사 필요” 韓·美·日 등 14개국 재분석 촉구

세계보건기구(WHO)의 중국 우한 현지 방문 조사 결과를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조사 보고서가 발표됐지만, 내용의 미흡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테워드로스 아드호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마저 비판에 합류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인 17명을 포함한 34명의 연구자와 WHO 등 전문가가 집필한 코로나19 기원 보고서가 이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 1~2월에 걸쳐 중국 우한에서 진행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결론을 정리했다.

조사팀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전파경로를 4가지로 상정하면서, 중간동물 숙주

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그다음은 동물에서 인간으로의 직접 전파설과 콜드체인(냉동식품 운송)을 통한 전파설이었다. 실험실 유출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극히 작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세계 곳곳에서는 내용의 미흡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 새로운 통찰력이나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잇따르는데다가, 중국에서의 현지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별다른 설명 없이 보고서 발표 시기가 지연된 것도 이런 논란에 불을 붙이는 요인이 됐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이스

라엘, 영국, 덴마크 등 14개국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국제 전문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 연구가 상당히 지연되고, 완전한 원자료와 샘플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원에 대한 간섭이나 부당한 영향을 배제한 투명하고 독립된 분석과 평가를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마저도 “국제팀이 연구소를 기원으로 하는 가설은 극히 가능성이 작다고 결론지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범위한 분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전문가를 포함한 추가 조사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연구소 유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효선 기자 hsbyun@

“도쿄올림픽, 슈퍼전파 이벤트 우려”

외국인 6만명 이상 日 참가 ‘변이 바이러스 용광로’ 될 수도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국면의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다. 외국인 관중 없이 선수들과 필수 인력만 참가하기로 했지만, 그 수만 해도 6만 명이 넘어설 전망이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도쿄올림픽이 또 다른 ‘슈퍼 전파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31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올림픽 주최 측은 운영 지침을 마련,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방침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격리와 접촉이다. 이들 관련 확실한 대책 없이 감염 확산은 불가피하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다.

올림픽 주최 측은 ‘미국 프로농구(NBA) 버블’을 차용하고자 한다. NBA는 선수들이 코로나19에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플로리다주 디즈니월드에서 특별 격리 지역을 만들었다. 주변과 철저히 차단된 버블 지역에 6개 시설을 설치, 모든 경기를 진행했다. 지난해 7월~10월 진행된 시즌에서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도쿄올림픽은 일본

전역의 42개 장소에서 스포츠 경기 33종목이 진행돼 NBA와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등과 화합을 추구하는 올림픽 특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선수촌 등 장소 자체가 사람들이 만나서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이유에서다. 장시간 대화와 식사 모임을 제한할 예정이지만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제 막 결혼마를 떼기 시작한 일본 내 백신 접종도 우려를 키우는 요소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 올림픽 기간 코로나19 확산이 현실화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산하는 것은 물론 선수들이 귀국하면서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번질 수 있어서다. 일본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용광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의 스펜서 폭스 교수는 “입국자 수와 글로벌 감염 정도에 따라 도쿄올림픽이 일본은 물론 글로벌 확산을 증폭시키는 슈퍼 전파 이벤트가 될 수 있다”면서 “예방조치가 아무리 훌륭해도 감염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서영 기자 ojung2@

“사무직 노조 가입 땀 지방 발령” 흥흥한 소문 떠돌아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재검토 혼란 가중

“사무직 노조에 가입하면, 지방으로 발령 나나요?”, “사업 철수하면 LG 스마트폰 업데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재검토 계획을 밝힌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문과 걱정이자. MC사업본부 직원들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 두 달 넘게 고민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사후관리(AS)의 중단을 우려한다. 협력업체들 역시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다.

31일 LG전자 블라인드와 내부 직원 등에 따르면 최근 설립된 사무직 노조에 가입하면 경력 등과 전혀 관계없이 지방 발령이 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나이 어린 직원들이 적응력이 빠르니 나이순으로 유리한 보직이나 계열사로 이동시킨다는 얘기도 나온다. 향후 사업부 철수가 확정되면, MC사업본부 직원들이 이동할 곳은

MC사업부 직원 거취 두고 불안 보직 이동 ‘칭탁 방지’ 내부명령도

스마트폰 파격 할인 등 재고 정리 SW 업데이트 지원 중단 가능성

2년 전 베트남 라인 이전 때보다 1·2·3차 협력업체 피해 커질 듯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LG유플러스 등 계열사를 비롯해 신설되는 ‘LG마그나이 파워트레인’ 등이 거론된다. LG전자 내에 선 전장(VS) 사업본부 혹은 창원공장 등 지방 발령도 있을 것이라 예상 나온다.

이미 2019년 경기도 평택 스마트폰 생

산라인을 베트남 ‘LG 하이퐁 캠퍼스’로 통합 이전할 당시, 평택 스마트폰 생산인력을 창원 생활가전 생산 공장으로 재배치한 바 있다.

LG전자 한 직원은 “누구든 좋은 계열사로 가고 싶어하지 않겠느냐”며 “재검토가 길어지면서 온갖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직원들이 원하는 사업부로 가기 위해 칭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부 명령이 있었다고도 알려졌다.

회사 측은 “현재 위치에서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하라”는 메시지를 내놨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신제품 개발 등이 중단된 탓이다.

현재 MC사업본부 매각은 사실상 중단되고 철수로 가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우세하다. 베트남 등 시장에서 다수의 기업이 거론됐지만, 스마트폰 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토대한 추정이었을 뿐 실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기업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 철수로 결정 난다면,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LG전자는 최근 LG벨벳, V50 등 기존 스마트폰 재고를 이벤트와 가격 할인행사 등을 통해 정리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알뜰폰 브랜드인 SK세븐모바일은 지난 24일 특별 이벤트를 통해 지난달 알뜰폰 전용으로 출시된 벨벳LTE모델을 공짜폰 수준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향후 사업 철수 시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G전자는 가뜩이나 스마트폰 업데이트가 느리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며 “사업부 철수 후, 업데이트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먼저 사업부 방향성이 결정되어야 직원들의 이동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향후 계획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고만 밝혔다.

협력 회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표적으로 LG전자 1차 협력사 일하는 최근 실적 악화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회사 측은 “주요 매출처인 LG전자 스마트폰 생산 중단 결정에 따른 거래 종료로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적자가 지속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직접적인 타격은 LG전자가 2019년 스마트폰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기면서부터다. LG전자와 파트너십 재검토가 필요했지만 결국 협의가 안됐고, 지난해 협력관계를 종료했다.

이번 스마트폰 사업 철수는 베트남 라인 이전보다 훨씬 큰 충격이다. 1차 협력사 일감이 없어지면, 2, 3차 협력사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본다. LG전자 MC사업본부의 협력업체는 수백 개에 달한다. 게다가 2019년 생산 설비를 들고 함께 베트남으로 간 회사들도 몇 년 만에 설비를 철수해야 한다.

송영록 기자 syr@



제네시스가 31일 온라인으로 공개한 전기차 기반 GT 콘셉트카 ‘제네시스 엑스’. 사진제공 제네시스

전기차 콘셉트카 ‘제네시스 엑스’ 공개

브랜드 상징 디자인 ‘두 줄’ 극대화 디스플레이 등 운전자 중심 설계

제네시스가 전기차 기반의 GT(Gran Turismo) 콘셉트카 ‘제네시스 엑스(Genesis X)’를 31일 온라인 채널로 공개했다.

이날 선보인 영상에는 26일(현지시간) 미국 LA에서 진행된 콘셉트카 공개 행사와 콘셉트카의 주요 디자인 특징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장재훈 제네시스 브랜드 사장은 “이번에 공개한 차량은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디자인의 본질적인 요소를 극적으로 담은 콘셉트카”라며 “제네시스만의 창조적이고 대담한 시도를 보여주는 콘셉트카를 통해 제네시스가 제안하는 미래 디자인 비전을 만나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네시스 엑스는 뉴욕 콘셉트, GV80 콘셉트, 에센시아 콘셉트, 민트 콘셉트에 이은 제네시스의 다섯 번째 콘셉트카로, 지속 가능한 럭셔리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제네시스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이번 콘셉트카는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핵심 디자인 요소인 ‘두 줄’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며, 차량 내·외장 곳곳을 비롯해 전기 충전구에 적용한 두 줄 디자인은 향후 출시될 제네시스 전기차 모델의 디자인 방향성을 보여준다.

제네시스 엑스(Genesis X)의 차명은 브랜드명 ‘제네시스(Genesis)’에 숨겨진 영웅(Hidden Hero)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엑스(X)’를 붙여 완성됐다.

제네시스 엑스의 실내는 모든 조작계와 디스플레이가 운전자를 감싸는 형태의 카핏이 적용된 운전자 중심 설계를 반영했고 여백의미를 강조했다. 운전석은 스크린 브라운 컬러로, 동반석은 오션 웨이브 그린 블루 컬러로 두 공간을 구분해 제네시스 엑스만의 차별화된 감성을 전달한다. 특히 차량 생산 과정에서 미사용된 가죽을 재활용해 엮어 만든 위빙(Weaving) 패턴의 신개념 소재를 안전벨트와 스티어링 휠 일부 및 에어백 커버에 적용해 친환경성을 강조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조카의 난’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 결국 해임

금호석화화학이 최근 박찬구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박철완 상무를 해임했다. 금호석화화학은 31일 “박철완 상무는 해외고무영업 담당 임원으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해 관련 규정에 따라 위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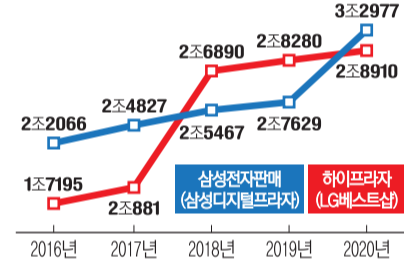
박철완 회장은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막내아들이자 금호석화화학의 개인 최대 주주다.

올해 초 박찬구 회장과 특수관계를 해소한다고 선언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나섰지만, 26일 정기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완패했다. 이후 박 상무가 퇴사하지 않고 출근을 이어가자 회사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박 상무가 자진 용퇴를 거부함에 따라 거취에 대해 본인 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비스포크’ 끌고 ‘QLED TV’ 밀고 삼성, 가전유통 매출 2년 만에 LG 추월

삼성디지털프라자 매출 3.3兆 영업익 109억 11년 만에 ‘흑자’ LG베스트샵도 사상 최대 실적

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 매출 (단위 : 억 원) ※출처: 각사 감사보고서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삼성디지털프라자가 지난해 매출 3조 원을 돌파하며 LG베스트샵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2년 만의 매출 추월로 삼성디지털프라자는 11년 만의 흑자전환도 기록했다.

31일 삼성전자판매(삼성디지털프라자)와 하이프라자(LG베스트샵)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디지털프라자는 지난해 매출 3조2977억 원을 기록하며 LG베스트샵(2조8910억 원)을 앞섰다.

삼성디지털프라자가 LG베스트샵에 앞선 것은 2017년 이후 2년 만이다. 삼성디지털프라자는 2018년 매출 2조5467억 원을 기록하며 LG베스트샵

(2조6890억 원)에 추월당했다. 이듬해인 2018년에도 삼성디지털프라자는 매출 2조7629억 원을 기록하며, LG베스트샵(2조8280억 원)의 뒤를 이었다.

삼성디지털프라자는 지난해 영업이익도 109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 2010년 이후 10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다가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언택트 환경이 조성되면서 매장 확대 등 오프라인을 통한 판매보다 온라인 역량을 강화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LG베스트샵도 지난해 영업이익 95

억 원을 거뒀다. 두 회사 모두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양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 펜트업(pent-up) 수요가 이어지면서 매출이 증가했다. 여기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10%를 돌려주는 ‘에너지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도 가전 판매 확대에 힘을 보탰다.

특히 삼성디지털프라자는 맞춤형 가전 ‘비스포크’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TV와 스마트폰 판매도 꾸준히 이어지면서 매출이 동반상승했다. LG베스트샵도 의류관리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등 신가전 판매 확대와 더불어 프리미엄 가전인 ‘시그니처’와 맞춤형 가전 ‘오브제’의 선방으로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삼성을 따라잡지는 못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한화디펜스, 지능형 다목적 무인차량 軍 시범운용

한화디펜스는 자사가 개발하는 AI(인공지능) 기반 최첨단 다목적 무인차량이 올 하반기 군 시범운용에 투입된다고 31일 밝혔다.

육군은 최근 한화디펜스가 개발하는 ‘지능형 다목적 무인차량’을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했다.

다목적 무인차량이란 보병 부대에 편성하는 2톤 급 차량이다. 고위험 전장 환경에서 병사 대신 물자와 탄약수송, 수색·정찰, 환자수송, 근접전투 지원 등 여러 임무



한화디펜스의 ‘6x6 지능형 다목적무인차량’.

를 수행하는 미래형 국방 로봇 체계다.

이번에 개발 중인 지능형 다목적 무인차량은 7월 공개 예정이다. 6륜 구동 플랫폼

으로 기존 모델보다 최고속도와 적재중량, 항속거리 등 주요 성능을 대폭 높인 수출형 제품이다.

적재 중량이 기존 200kg보다 2배 이상 늘어 고하중의 전투물자 수송과 부상자 후송 등 전투 지원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항속거리도 기존 25km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난다. 특히, 통신 두절 시 1분간 스스로 통신 재연결을 시도하고, 미복구 시 최초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스마트 자율복귀’ 기능도 갖췄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LS니꼬동제련, 아시아 첫 ESG 국제인증 신청

국내 최대 비철금속 소재기업 LS니꼬동제련이 31일 아시아 최초로 ‘카퍼마크’ 인증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카퍼마크는 국제구리협회(CIRI)가 주도하는 인증제도로 동광석 채굴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과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 상생, 윤리 경영 등 기준을 준수한 기업에 수여하는 구리업계 유일의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인증 시스템이다.

현재 카퍼마크 인증을 받은 곳은 캐나다

광산기업 리오턴토가 유일하며 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진행 중인 기업은 LS니꼬동제련을 포함한 7개 기업에 불과하다. 런던 금속거래소(LME)는 구리산업 관련 기업에 대해 2023년까지 책임구매정책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카퍼마크 인증이 유일한 방안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현대모비스 “車반도체 직접 만들어 공급 부족 대응”

‘전략사업 및 신기술 발표 콘퍼런스’

단기 대체 공급 이슈 해결·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의지

현대모비스가 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단기적으로 대체 공급제를 찾아내 수급 부족을 해결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31일 경기도 용인에 자리한 기술연구소에서 주요 언론을 대상으로 ‘현대모비스 전략 및 신기술 콘퍼런스’를 열고 사업 구조를 바꿔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발표에 나선 정수경 현대모비스 기획부문장(부사장)은 “자동차 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글로벌 부품사들의 역할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라며 변화의 당위성을 먼저 설명했다.

우선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인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만들어 판매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심항공 모

빌리티(UAM)의 전동 추진체 개발도 모비스가 맡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열린 간담회에서 현대모비스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글로벌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차량용 반도체가 모자라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 물량을 조절 중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반도체 대량 주문을 통해 상대적으로 여파가 덜했지만 4월 초 불가피하게 생산량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아이오닉 5 조립 일정도 늦어져 현대차는 내달 생산 계획을 기존 1만 대에서 2600여 대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대모비스는 반도체 부족으로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 규모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 “조속히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국 현대모비스 전동화랩장(상무)



정수경 현대모비스 부사장이 31일 경기도 용인시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전략 및 신기술 콘퍼런스’에서 중장기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모비스

은 아이오닉 5 생산물량 축소와 관련해 “조기 양산 목표 수량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다. 조만간 물량을 만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모비스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부

품에 한해서는 대체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영광 현대모비스 기획실장(상무)은 “현대차와 기아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대부분 범용 반도체”라면서 “성능을 유사하게 낼 수 있는 대체재를 찾아서 조립하는 방

식으로 단기 공급 이슈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대오트론의 ‘반도체 사업 부문’을 인수한 것도 이를 위해서다. 모비스는 지난해 12월 현대오트론과 1332억 원 규모의 반도체 사업 부문 개발 인력과 관련 자산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고봉철 현대모비스 상무는 “현대모비스가 소프트웨어도 공급하는 회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기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직접 개발해야 한다”라며 “우리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된 반도체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내재화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트론 반도체 부문을 인수한 것은 반도체를 잘 사 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전략적 투자를 4년 내 7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1조 원 수준의 연구·개발(R&D) 직접 투자를 2025년 1조7000억 원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Our Take on a Timeless Design

블랙시(BLACK SEA) 운석 다이얼을 소개합니다.

각각의 다이얼은 스페인에 떨어진 사라고사 운석에서 잘라낸 다음 산 처리되어 여러분이 보는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블랙시(BLACK SEA)의 운석 다이얼은 겹치는 디자인 없이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모습을 선사합니다.

블랙시(BLACK SEA) 운석은 에리스골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나 더 멀리 존재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주의 한 조각을 내 손목 위에’



BLACK SEA G9027 S-BKT-MB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

서울시·LH와 8월 말까지 계약 체결 연내 대금 지급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에 대한 고충 민원을 신청한 지 약 10개월 만에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대한항공은 3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주재하에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를 서면 합의 형식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항공·서울시·LH는 서울시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올해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매각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서 체결에 따라 LH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사유지 중 하나와 교환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류자산 매각이 시급한 대한항공 입장 △송현동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서울시 입장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시내에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LH의 입장 모두가 조율된 결과다.

송현동 부지 매매대금 결정을 위한

절차도 조정서에 명기됐다. 공정한 가격평가를 위해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고, 이를 산술평가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이미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분쟁 소지가 다분한 사례에서 4개 이상 법인을 선정해 감정평가가 진행된 선례도 있다.

이에 따라 송현동 부지의 경우에도 4개 법인의 평가를 거치는 만큼 공정하고 적절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3조3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한 대한항공은 이번 조정서 체결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재무구조 개선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송현동 부지 문제는 지난해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했던 유동성 확보 및 채권은행과의 자금지원 약정에 따른 지구노력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민간매각하고자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고, 이에 대한항공은 2020년 6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이주혜 기자 winjh@

‘비스포크 인덕션’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는 강력한 화력과 다채로운 색상이 돋보이는 ‘삼성 비스포크(BE-SPOKE) 인덕션’ 신제품(사진)을 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삼성 비스포크 인덕션은 화이트 세라믹 글라스 상판에 소비자 취향이나 주방 인테리어에 따라 조작부의 색상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듀얼 글라스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이다. 기존의 핑크, 그레이, 화이트에 썬 옐로우, 그리너리가 추가돼 총 5가지 색상으로 선보인다.

또한, 좌측 화구에는 4개의 코일이 촘촘



하게 배치돼 고온 열전달이 가능한 ‘와트로 플렉스존’을 적용해 다양한 형태의 조리 용기를 활용할 수 있다.

맥스(Max) 부스트 기능을 사용하면, 단일 화구에서 최대 3300W(와트)의 강력한 화력을 낼 수 있어 더욱 빠른 조리가 가능하다. 권태성 기자 tskwon@

“정수기·에어컨 팔아요” 휴대폰 대리점의 변신

SKT, SK매직 렌탈상품 판매 “여행·배달 등 상품 출시 검토” KT, 파세코 에어컨 전시·판매 비대면 개통 시대 수익원 개척

휴대폰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포함한 유통의 새 장구로 탈바꿈하고 있다.

3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가전·렌탈 업체와 협력해 합종연횡을 강화하고 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가전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휴대폰 대리점의 변신은 비대면 개통 추세와 맞물려 이뤄지는 모습이다. 통신사들은 지난해부터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유통에 앞장서고 있다. 알뜰폰 인기에 자급제 폰 수요가 늘면서 비대면 유통 활성화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 통신사들도 이에 발맞춰 키오스크 유심 개통 등으로 자급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의 개통 수요가 온라인으로 일부분 옮겨가면서 대리점들은 ‘체험’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

SK텔레콤(SKT)은 이날부터 SK매직의 정수기, 공기 청정기, 인덕션 등 다양한 렌탈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고 가입, 구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SKT 대리점에서 SK매직이 취급하는 렌탈 상품 전체(정수기, 공기 청정기 등 88개 모델)를 판매하는 것이다. 1차로 1700여 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렌탈 가입,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SKT 전 매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지역별 거점에는 체험 전문 매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SKT는 “유통망 입장에서 기존 수익 원인 휴대폰, 유선, 보안 등 통신 연계 서비스 외에 새로운 판매 수익원을 찾을 수 있게 돼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SKT는 향후 대리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웅 SKT 구독마케팅담당은 “SKT

는 이번 생활형 가전 렌탈 구독 서비스 론칭 뒤에도 F&B, 여행, 모빌리티, 배달 등 생활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서 순차적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라며 “고객들은 앞으로 SKT 대리점에서 통신 서비스뿐 아니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서비스들의 체험과 구독을 상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최근 파세코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이달 29일부터 KT 강북고객본부 관할 100여 개 대리점에서 파세코의 창문형 에어컨을 전시 및 판매하고 있다. KT는 전시, 판매 매장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에어컨 외에도 파세코의 여타 제품들을 KT 대리점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또, KT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가전제품 공동 개발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KT는 “코로나 19로 방문객이 감소한 대리점을 위해 통신 상품 외에 중소·중견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해 대리점 수익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소비자들이 SK매직의 정수기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 SKT

“세계적 연주자와 학생 1:1 온라인 레슨”

인터뷰

최형순 클레스 대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교육 서비스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표적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는 무크(MOOC, 온라인 공개강좌)다. 무크는 현재 IT, 언어 분야의 강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강의 영역 확대에 목말라 있다.

뮤지션 무크 플랫폼 기업 클레스는 글로벌 뮤지션의 강좌에 주목했으며 무크의 강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월드클래스 아티스트들과 월드클래스 대학교들이 참여한 교육 플랫폼을 개발했고, 구독형 무크 플랫폼의 가치 창출이 앞으로 목표이자 과제다.

최형순 클레스 대표이사는 3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과 영국의 명문음악대 MI, ICMP의 콘텐츠 수급 계약이 체결됐으며, 여러 기관과 논의 중”이라며 자사의 구독형 온라인 공개 강좌 플랫폼 ‘오픈트랙’(OPENTRACK)을 설명했다.

클레스의 출발은 유명 악기 연주자와 음악 전공 희망자 간의 1:1 레슨 연결 플랫폼이다. 네이버 기획자 출신인 최 대표는 네이버 사내 보컬 교실을 동호회 형태로 운영하던 과정에서 음악 교육 시장에서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자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음악인들이 학생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우선 네이버, EA Korea 등에서 쌓은 IT 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업계 출신(SK플래닛)인 김형준 공동대표와 힘을 모았다. 음악 활동을 하던 고등학교 절친을 돕기 위한 것도 창업 계기다.

최 대표는 “처음 목표는 주 2일 교육만으로 음악인들의 생계 걱정을 해소하는 동시에 나머지 시간은 (생활비 걱정 없이) 음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최형순 클레스 대표이사는 “온라인 음악 교육 플랫폼 ‘오픈트랙’을 통해 수준 높은 레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음악교육 ‘오픈트랙’ 운영 美·英 명문 음대와 콘텐츠 계약 교수들과 1년간 커리큘럼 연구 완성도 높여 영상·디자인 확장

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분을 IT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며 “결론은 월드클래스 아티스트들의 그들의 생각과 노하우를 교육하는 오픈 트랙(OPENTRACK) 서비스”라고 전했다.

클레스의 글로벌 온라인 음악 교육 서비스 오픈 트랙은 음악 분야 전문가(마스터)를 꿈꾸는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타사와의 차별점은 전문성과 연속성이다. 최근 미국의 마스터 클래스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의 마스터 강의를 모아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체계와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 대표는 “최근 나오는 서비스 대부분은 가벼운 수준의 취미 분야에 관한 지식을 얻는 수준”이라며 “뮤지션 지망자들은 마스터 클래스나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교육 중 본인에게 맞는 양질의 교육을 선별해내야 하며 이는 아마추어로서 쉽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픈 트랙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프로 뮤지션 준비자’가 되기 위한 이들을 위해 모든 과정을 분야별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커리큘럼)을 통해 제

공한다”며 “교육과정의 각 세부 분야를 세계 최고 아티스트들과 기관이 맡아서 교육한다”고 강조했다.

클레스는 오픈 트랙의 커리큘럼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외 명문 실용음악대학인 MI(Musicians Institute 미국), ICMP((The Institute of Contemporary Music Performance 영국) 등의 대학교수진과 1년간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연구했다.

교육과정의 핵심은 성장이다. 오픈 트랙의 교육과정은 게임의 스테이지와 유사하다. 게임의 각 스테이지를 맡은 각 스테이지의 보스(마스터 아티스트)가 있고 이들의 클래스를 하나씩 수강하며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야 한다.

강사진도 해당 대학의 교수진뿐만 아니라 그래미 12회 수상자를 비롯해 음악 작곡, EDM 전자음악 디제잉, 드럼, 기타 등 영역에서 손꼽히는 뮤지션들이 강연자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접한 유명 뮤지션의 오프라인 마스터 클래스도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음악 분야에서 정립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영상, 디자인 등 다른 예술 영역으로의 확장이다.

최 대표는 “현재는 수준 높은 예술 교육을 받기 위해 보고장 유학, 대학 교육 혹은 최소 학원 등 커다란 금전적 지출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과 테크의 발전으로 세계 최고들의 목소리를 안방에서 보고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종민 기자 kjm@

지상파 방송도 중간광고 허용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의결

지상파 방송사가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정식 시행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반영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1월 13일 방송사업자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 달 20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중간광고 허용과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매체 간 규제차 해소 등 내용은 기존 예고안을 유지했다. 다만, 방송 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주류 등 품목에 대해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존중해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2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7월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

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제고와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송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 분야,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편성비용 산정기준은 기존 ‘매월·매분기·매 반기·연간’에서 ‘매 반기·연간’으로 통일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OBS경인TV에 대해 올해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를 ‘폐쇄 자막 90%, 화면 해설 9%, 한국 수어 4.5%’로 경감했다.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및 OBS 제작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JTBC2와 JTBC 골프를 운영하는 JTBC 플러스 역시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를 경감 및 유예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첫 지역 단위 ‘가명정보센터’ 강원도에 설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초의 지역 단위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를 강원도에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명 정보 활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지역 소재 기업 및 기관들이 안전하게 가명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다. 공모 기간인 2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의 광역 지자체가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개인정보 및 가명 정보 분야 전문가 24명을 추천받아 신청 지자체와 업무 관련자를 제외한 후 무작위로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사업목표 및 내용, 추진체계 및 전략, 참여기관 역량, 사업 수요, 사업효과 등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비대면 온라인 발표 심사를 진행했다.

강원도는 지원센터 역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인력·시설 활용 의사를 표명했다. 이미 구축된 보건·의료·중소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인프라

와의 연계성, 실현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다.

강원도에는 라이프로그·정밀의료·중소기업 빅데이터플랫폼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더존 등 결합전문기관과, 네이버·더존비즈온·삼성 SDS·오라클 등 기업의 데이터센터가 집중됐다.

개인정보위는 KISA 및 강원도와 함께 4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 6월 중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KISA는 지원센터의 가명 정보 활용지원 컨설팅, 적정성 검토 전문가 풀드와 연계해 가명처리 이론 교육 등 기업·기관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강원도는 지원센터를 지역 가명 정보 활성화의 거점으로 삼아 교육, 컨설팅, 홍보, 협의체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 가명 정보 활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박소는 기자 gogumee@

“글로벌 1위 ‘라면왕 숙원’ 이루자” 농심 신동원號 출항

美 LA 제2공장 연내 마무리... 올해 미국 라면시장 2위 목표
외국인도 ‘식사’ 인식 글로벌 노크 반세기 만에 수출 10억 달러

한국을 넘어 세계 속의 농심을 키워낸 ‘라면왕’ 고 신춘호 회장의 못 다 이룬 꿈 ‘글로벌 1위’는 ‘신동원호’의 과제로 남게 됐다. 고인이 마지막까지 당부한 세계화가 농심의 숙원과제가 된 만큼 신동원 부회장을 주축으로 농심은 올해 해외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글로벌 넘버 5’ 농심, 1위를 꿈꾼다= 농심은 미국 LA에 2억 달러를 투입해 설립중인 제2공장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가동을 시작해 미주 시장 맹주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농심 미국 제2공장에는 봉지면 1개 라인과 용기면 2개 라인이 우선 설치된다. 모두 고속 생산 라인으로 완공되면 제2공장에서만 연간 약 3억5000개의 라면을 더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기존 제1공장 생산량까지 합치면 농심은 연간 총 8억5000개의 라면을 미주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농심은 제2공장의 가동과 함께 올해 미국 라면시장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농심은 미국에서 22%의 점유율을 기록해 2위 기업인 일본 닛신(24%)과 점유율 격차를 2%p까지 좁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한국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9.3% 성장하며 사상 처음으로 6억 달러를 돌파했다. 농심의 지난해 수출액은 3억4950만 달러로, 한국 라면 수출의 절반을 웃도는 성과다. 농심의 미국과 중국 등 해외 법인



농심 미국공장에서 한 직원이 신라면 생산라인에서 제품을 검수하고 있다.

매출까지 더하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지난해 라면 수출액보다 30% 이상 큰 9억 9000만 달러에 달한다. 올해 농심은 수출과 해외법인에서 10억 달러 매출을 가뿐히 넘길 전망이다.

농심의 간판 제품인 신라면은 1971년부터 반세기 동안 해외시장 문을 두드려온 결과 세계 100여개 국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17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세계 최대 유통사인 월마트의 미국 내 전 점포에 입점을 완료했다. 이후 코스트코와 크로거 등 메인 유통사로 판매망을 계속 넓혀 지난해 월마트와 코스트코에서 매출이 각각 39%, 52%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에는 글로벌 라면 수요 증가에 발맞춰 그간 쌓아온 영업 인프라와 마케팅 노하우를 총동원해 세계인이 장바구니에 농심 라면을 담게 만들었다. 또한,

미국과 중국 현지 생산라인을 풀가동하는 동시에 수출물량을 늘리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했다. 농심은 유로모니터가 발표한 ‘2019-2020 Packaged Food-Instant Noodle’ 자료에서 2019년 기준 한국 기업 최초로 5.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세계 라면기업 순위 5위에 올랐다.

◇간식에서 식사로 세계인 인식 바뀌=세계인들은 라면에 대한 인식을 중전의 간식에서 식사로 바꾸고 있다. 인식 변화는 SNS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농심이다. 인스타그램에서 #KoreanRamyun(Ramen)과 #ShinRamyun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전 세계에서 신라면을 비롯한 한국 라면을 즐기는 모습이 10만여개 검색된다.

단순히 한국 라면을 먹어봤다는 것을 넘어 계란이나 만두, 해산물 등 각종 취향대로 재료를 더해 먹는 모습은 라면이 한끼 식사로 손색 없다는 방증이다. 한국 라면의 흥행 비결은 ‘간편함’과 ‘맛’에서 찾을 수 있다. 가정에서 손쉽게 식사를 해결하기 원하는 소비 트렌드와 뜨거운 물만 있으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라면 특유의 간편함이 소비자 니즈에 맞아떨어진 것이다.

한국 라면은 깊고 진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 풍성한 건더기 등 맛과 품질에서 일본과 중국 등 타 국가의 라면을 뛰어넘으며 ‘세계 최고의 라면’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라면블랙은 지난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라면으로 뽑히기도 했다. 라면왕은 떠났지만 한국 라면의 위상은 그의 바람처럼 세계를 호령할 정도로 높아졌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문턱 낮아진 와인 흡술 대세로



접근성을 무기로 위드코로나 시대 ‘집 앞 와인 판매점’으로 입지를 굳힌 편의점을 필두로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와인 판매에 점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흡술 문화가 확산하며 저도수인 와인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다.

3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와인 수입량은 5만4127톤, 수입액은 3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각각 24.4%, 27.3% 증가했다. 수입량과 수입액은 모두 역대 최대치다.

막걸리와 맥주 등 ‘저도수’ 상품 중에서도 특별히 와인이 인기를 끄는 이유로 업계는 접근성 향상과 와인 특유의 ‘이미지’를 꼽는다. 한 유통업계 관

장 잘 어울리는 와인으로 꼽힌다. 가볍고 청량한 질감과 높은 산도가 특징이다.

‘롱 클라우드 리저브 소비뇽블랑’(1만9900원)은 마오리족이 뉴질랜드를 ‘아오테아로아(AOTEAROA, The Land of Long White Cloud/길고 흰 구름의 땅)’라 불렀던 것에 착안해 이름을 정했다.

‘배비치 포비든 바인 소비뇽블랑’(1만9900원)은 파인애플, 허브향, 레몬 맛이 어우러져 상큼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낸다.

GS리테일은 접근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GS리테일은 지난달 말 편의점 업계 최초로 선보인 주류 스마트오더 플랫폼 ‘와인25플러스’의 서비스



계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와인은 ‘고급 주류’로 여겨져 젊은층엔 부담스러운 술이었으나 최근 편의점과 대형마트에 ‘가성비’ 제품이 대거 출시되며 문턱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맥주, 소주와 다르게 특별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분석했다.

사회적으로 과음을 지양하고 흡술, 흡술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와인의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다양한 제품을 내놓는 동시에 판매채널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와인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편의점이다.

세븐일레븐은 봄 시즌을 맞아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피크닉 콘셉트의 화이트 와인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롱 클라우드 리저브 소비뇽블랑’, ‘배비치 포비든 바인 소비뇽블랑’ 등 뉴질랜드 말보로산 화이트 와인 2종이다.〈사진〉

‘소비뇽블랑’은 뉴질랜드 대표 화이트 와인 품종으로 싱그러움 꽃향과 열대과일향이 어우러져 봄·여름에 가

작년 3.3억 달러 수입 ‘최대’ 대형마트 ‘가성비’ 대거 출시 편의점서 접근성 강화 방침 특별한 분위기도 인기 한몫

범위를 30일부터 GS샵으로 확대 론칭했다.

이번 서비스확대로 소비자가 GS샵의 모바일 앱과 온라인몰에서도 주류를 주문하고 가까운 GS25에서 찾아갈 수 있게 됐다.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봄맞이 대규모 와인 행사를 실시한다. 롯데마트는 1일부터 14일까지 1년 중 와인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봄 프리미엄 와인장터’를 진행, 다양한 와인을 엘포인트 회원 대상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행사 대상 품목과 물량을 전년 대비 40%가량 늘려 700여종, 30만 병을 준비했다. 롯데마트는 국내 시장에서 늘어나는 와인 수요에 맞춰 프랑스 부르그뉴·보르도 와인 등 프리미엄 상품부터 1만 원대 초저가 와인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3월말부터 4월 1일까지 상반기 와인 창고대전을 실시 중이다. 총 52만 병, 11개 수입사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선 최대 85%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獨 주얼리 ‘쿠도’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본점 지하 1층에 독일에서 온 인터체인저블 주얼리 브랜드 ‘쿠도(QUDO)’가 국내 최초로 입점했다고 31일 밝혔다. 쿠도의 ‘인터체인저블 라인’으로 제작된 모든 주얼리(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는 100가지 이상의 스와로브스키 소재를 개개인의 취향대로 골라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본점 오픈을 기념해 4월 30일까지 구매 고객 대상 금액대별 사은품 증정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명품 사면 청구 할인” 신세계백 VIP 전용 카드 출시

삼성카드와 ‘더 에스 프레스티지’ 백화점 ‘골드 등급’ 이상 고객 대상



신세계백화점이 VIP 카드를 다양화하며 ‘백화점 큰손’ 명품족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신세계백화점은 삼성카드와 손잡고 명품 구매 고객을 겨냥한 ‘더 에스 프레스티지(The S Prestige)’ VIP 전용 카드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골드 등급’ 이상 고객 대상으로 발급하는 이번 VIP 카드는 지난 2019년에 출시한 ‘THE BOON 카드’에 이어 두 번째 VIP 전용 카드다.

이 업체는 전년도 구매 금액에 따라 6개의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최상위 999명은 트리니티 △다이아몬드(연간 6000만 원) △플래티넘(연간 4000만 원) △골드(연간 2000만 원) △블랙(연간 800만 원) △레드(연간 400만 원 또는 분기 기준

100만 원~200만 원) 등으로 구분된다.

실제로 지난 1년간 VIP 카드를 소지한 고객 매출을 분석한 결과 명품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늘길이 막혀 해외 여행 대신 탁한 보복 소비와 나라를 위한 플렉스 소비 등 다양한 이유로 명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VIP 삼성카드는 이런 고객들을 대상을 특별한 서비스를 선사하며 차별화를 시도한다.

먼저 스페셜 마일리지로 통해 명품족을 위한 혜택을 강화했다. 스페셜 마일리지란 VIP 골드 등급 이상 고객이 본인 명의의 신세계 제휴카드로 14개 명품 브랜드 중 단

일 브랜드에서 300만 원 이상 구매 시 50%를 적립하여 다음해 2월 중 적립 금액을 상품권으로 증정하는 제도다. 이번 VIP 삼성카드를 출시하며 기존 적립 가능한 브랜드 수를 기존 일반 제휴카드보다 3배 늘리는 등 혜택을 강화했다.

할인이 없었던 명품 구매 시에도 결제일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 금액 조건이나 할인 한도 없이 신세계백화점에서 결제 시 1.2%,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 시 1.0%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신세계 VIP 고객에게만 주어지는 할인 제도인 세일리지 한도를 기존 VIP 등급에서 추가로 500만 원 더 제공하며 최대 10% 할인해준다.

이성환 신세계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명품족을 위한 VIP 전용 특화 카드를 새롭게 출시하며 고객 선택권을 다양화한다”며 “앞으로도 차별화 된 마케팅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50주년 GS리테일 “2025년 매출 25조 달성”

창립 50주년을 맞은 GS리테일이 7월 GS홈쇼핑과의 합병을 앞두고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GS리테일은 합병을 통해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으로 거듭나 2025년 기준 매출액 25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은 “50년간 계속해서 변화하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산업 트렌드에 맞춰 발빠르게 변화하고 스스로를 혁신해 왔다”며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GS홈쇼핑과의 합병을 통해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통합 쇼핑 플랫폼을 구축해 고객과 함께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ESG 경영을 중심으로 사회

적 책임 실현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 아래 올 3월 ESG위원회를 출범했다. 이 회사는 2019년부터 ‘Green Save(그린세이브)’를 선포하며 ESG경영에 동참하고, 전사 차원의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전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이벤트를 실시한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GS리테일 50주년 축하파티 ‘썬나다 페스티벌’을 진행해 아이오닉5, 애플워치6 에르메스 등 다양한 경품을 추첨 증정한다. GS리테일에서 50주년 엠블럼이 부착된 행사상품을 구입하고 ‘더팝’ 앱을 통해 멤버십포인트를 적립하면 행사에 참여 가능하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하나로 힘을 모읍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하나금융그룹의 첫걸음
[BIG STEP FOR TOMORROW]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과
친환경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기술이
하나가 되어야 지구를 지킬 수 있기에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의 힘으로
지구를 지키는 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ESG [BIG STEP FOR TOMORROW]

STEP1 탈석탄 금융, 탄소중립 추진으로 탄소 제로 이행에 동참 >> STEP2 ESG 금융 활성화로 금융의 환경 및 사회적 기여 확대 >> STEP3 투명한 ESG 정보 공개를 통한 이해관계자 신뢰도 제고

진격의 SK, 글로벌 '바이오 공룡' 꿈 영근다

SK가 제약·바이오사업 제패를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을 강화,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계획이다.

31일 SK그룹의 투자전문 지주회사 SK(주)는 프랑스의 유전자·세포 치료제 CMO 기업 이포스케시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SK팜테코의 원료의약품 CMO 사업을 고성장하는 바이오의약품 CMO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포스케시는 2016년 설립된 기업으로 유전자·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의 핵심인 유전자 전달체 생산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다.

유전자·세포 치료제 분야는 선진국에서 임상 개발 중인 연간 1800여 개 바이오의약품 중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활발히 투자하는 혁신 영역이다. SK(주)는 이포스케시의 생산 역량을 2배로 확대해 유럽 내 최대 규모 유전자·세포 치료제 생산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SK(주) 관계자는 "기술장벽이 높은 유

SK(주) 프랑스 이포스케시 인수

SK바이오팜·팜테코 주축으로

종합 바이오사 도약 발판 다져

백신 생산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 전분야로 CMO 확장"

전자·세포 치료제 시장에 한국 기업이 처음으로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주요 주주인 제네론의 기술력과 SK(주)의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로 SK(주)는 혁신신약 개발 기업 SK바이오팜과 CMO 기업 SK팜테코를 주축으로 종합 바이오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글로벌 CMO 사업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시장에 혁신 신약을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SK팜테코의 매출은 2019년



5554억 원에서 지난해 7104억 원으로 27.9% 증가했다. 이런 속도라면 근시일 내 매출 1조 원 돌파가 가능할 전망이다. SK(주)는 SK바이오팜에 이어 SK팜테코 상장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해 회사의 몸집을 불릴 계획이다.

SK바이오팜은 국내 기업 최초로 독자 개발한 신약의 미국 식품의약품(FDA) 허가를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는 30일(현지시간) 유럽 허가까지 획득했다. 기술수출한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암페롤'도 미국과 유럽 허가를 모두 받았다.

차기 파이프라인은 소아 희귀 뇌전증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치료제 '카리

스바메이트', 희귀 신경계질환 치료제 '렐레노프라이드' 등 중추신경계(CNS) 질환에 집중돼 있다. CNS 질환은 미충족 수요가 높고 적은 영업인력으로도 직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 개척에 '영리한 카드'로 꼽힌다.

SK그룹의 또 다른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SK디스커버리는 자회사 SK케미칼과 SK플라즈마를 통해 제약·혈액제제·백신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사업 영역별 분사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특히 SK케미칼에서 분사해 코스피 시장에 안착한 백신 기업 SK바이오사이언

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대표 생산기지로 거듭나면서 기업 가치를 빠르게 높이고 있다. 올해는 주력 사업인 독감 백신 생산을 중단하고,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화이자 백신 등의 국내 유통도 맡아 개발부터 생산, 유통까지 코로나19 백신 사업의 전 단계 라인업을 완성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 과정에서 스위스 론자와 중국 우시바이오로지스, 한국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가치 평가 비교 기업으로 설정했다. 모두 글로벌 CMO 기업으로,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단순히 백신·개발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바이오 분야 전체로 CMO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국내와 해외 양쪽에 거대 생산설비를 갖춘 글로벌 CMO 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시장 조사기관 프로스트앤드설리번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MO 시장이 2025년 253억 달러(약 29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혜은 기자 euna@

러시아 백신 위탁생산 앞두고... 행정처분·상폐 잇단 악재

'스푸트니크V' 생산 바이넥스 의약품 불법제조 행정처분 대기 '코비박' 진행 썰마는 상폐 위기 기업들 "생산 이상無" 한목소리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러시아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위탁생산(CMO)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위탁생산에 참여한 일부 기업이 최근 악재에 휩쓸렸지만, 러시아 백신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와 '코비박'의 위탁생산을 담당한다. 스푸트니크V는 4월 초 첫 수출길에 오른다.

일찌감치 한국을 생산기지로 점찍은 러시아 국부펀드(RDIF)는 지엘라파와 한국코러스에 1억5000만 도스의 스푸트니크V 생산을 맡긴 데 이어 5억 도스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지엘라파와 자회사 한국코러스를 주축으로 7개 기업·기관(바이넥스, 보령바이오파마, 이수엡지스, 종근당바이오, 큐라티스, 휴메디스,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이수엡지스는 이 컨소시엄에서 가장 먼저 스푸트니크V 생산에 돌입했다. 이수엡지스와 함께 바이넥스, 큐라티스, 안동 동

국내 위탁생산 예정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코비박
개발기관	가말레야센터(러 보건부 산하)	추마코프연방과학연구소
종류	바이러스전달체 백신	불활성화 바이러스 백신
예방 효과	91.60%	임상 3상 중인
승인 시기	2020년 8월	2021년 2월
승인 국가	러시아, 헝가리 등 57개국	러시아
관련 국내 기업	지엘라파·한국코러스(주도) 바이넥스, 보령바이오파마, 이수엡지스, 종근당바이오, 큐라티스, 휴메디스, 안동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썰마테라퓨틱스(주도) GC녹십자, 휴먼엔
CMO 규모	1.5억 도스+5억 도스	1억 도스

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기술이전을 통해 백신을 원액부터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기업인 보령바이오파마와 종근당바이오, 휴메디스는 완제 생산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코러스 관계자는 "러시아로부터 이 전받은 기술을 다시 컨소시엄 기업들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진행한다"며 "상반기 중 기술이전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생산이 본격적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스푸트니크V의 국내 첫 생산분은 4월 초부터 출고된다. 한국코러스가 수주한 1억5000만 도스의 초도물량이다. 회사는 생산량을 꾸준히 확대해 하반기부터 월 1회의 정기적인 출고를 예상한다.

컨소시엄에서 상당량의 백신 생산을 담당할 예정이었던 바이넥스는 최근 의약품 허가·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가 중

지되고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바이넥스는 이번 조치가 스푸트니크V의 생산에 차질을 주지 않을 것이라 입장이다. 문제가 발생한 생산설비는 합성의약품 공장으로, 백신을 생산할 오송공장과 별도이기 때문이다.

바이넥스 관계자는 "오송공장의 7000리터 규모 생산 설비 가운데 5000리터를 러시아 백신 생산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최종 협의를 위한 미팅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RDIF에 따르면 스푸트니크V는 전 세계 57개국에서 승인됐다. 화이자 백신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 컨소시엄의 역할은 더욱 부각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의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인 코비박의 국내 위탁생산을 위해서는 모스크바 파트너스코퍼레이션(MPC)이 꾸러졌다. MPC는 러시아 백신을 전문적으로 생산

하기 위해 한국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윤병학 썰마테라퓨틱스 회장이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고 있다. 여기에 백신 생산설비를 갖춘 GC녹십자와 국내외 유통을 맡을 휴먼엔이 가세해 '코비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코비박을 개발한 러시아 추마코프연방과학연구소의 핵심 인력들은 3월 20일 한국에 들어와 GC녹십자의 오창·화순공장 등을 둘러보고 갔다. 연간 1억 도스 이상의 백신 물량을 한국에 위탁할 예정이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주축인 썰마테라퓨틱스가 2020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면서 백신 사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썰마테라퓨틱스는 백신 사업을 반드시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회장은 "백신은 상당히 빠른 진척을 보여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성장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코비박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썰마테라퓨틱스가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 아닌 만큼, 추마코프연방과학연구소의 의지에 따라 사업 진척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한다. 코비박은 지난 달 러시아에서 처음 승인됐으며, 아직 임상 3상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유혜은 기자 euna@



한미약품 항생제 '타짐주' 중국 우선 처방 목록 등재 고품질 인증 '일치성 평가' 통과

한미약품 항생제 '타짐주(성분 세프트라지딴, 이하 타짐)'가 중국 전역 의료기관에서 우선 처방 목록에 등재된다.

한미약품은 항생제 타짐주가 중국 정부의 고품질 인증 제도인 '일치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일치성 평가는 중국 정부가 의약품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6년에 도입한 제도로, 기존오리지널 제품과 효능이 동일함을 입증하는 엄격한 검증 시험이다.

이 평가를 통과하면 중국 전역에서 우선 처방 목록에 등재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공 의료시설인 국공립병원 공급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반대로 평가에서 탈락하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중국 내 외국계 제약기업 제품 중 일치성 평가를 통과한 항생제 주사제는 한미약품의 타짐이 최초이자 유일하다.

타짐은 한국 한미약품의 세파-플랜트에서 제조해 중국으로 수출한다. 중국 내 영업과 마케팅은 북경한미약품이 전담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세프트라지딴 성분의 항생제 시장은 5600억원 규모다. 이 중 타짐은 지난해 611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이는 중국 내 항생제 판매 회사 중 매출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십수 년간 축적한 한미의 우수 제조기술을 토대로 중국 정부의 까다로운 품질 심사 절차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라며 "중국 정부가 공식 인증한 고품질 의약품을 통해 중국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한국 제약기업으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이문은시아, 中 3D메디슨에 항암신약 5400억 기술수출

이문은시아는 중국 차세대 면역항암제 개발기업 3D메디슨(3D Medicines)과 총 4억 7050만 달러(약 54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이문은시아는 3D메디슨에 CD47 항체 항암신약 후보 물질 'IMC-002'의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중국 지역 전용실시권을 부여했으며,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중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이문은시아가 앞으로도 개발을 진행하면서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문은시아는 3D메디슨으로부터 계약금 800만 달러(약 92억 원)와 중국 지역 내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 판매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총 4억6250만 달러(약 5320억 원)의 기술료를 수령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매출액에 따라 단계별로 최대 두 자릿수의 경상기술료도 지급받는다.

3D메디슨은 중국 내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IMC-002에 대한 중국지역에서의 독점적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획득했다. 올해 안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국에 임상시

험계획(IND)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IMC-002는 차세대 면역관문 치료 타깃인 CD47에 작용하는 약물로, 암세포에 대한 약물 특이성과 안전성을 높여 타 약물들과 차별화된 2세대 CD47 타깃 항체로 평가 받는다. 임상 현장에서도 내약성과 투약 편의성을 개선한 약물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현재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송윤정 이문은시아대표는 "3D메디슨은



송윤정(가운데) 이문은시아 대표가 지난달 30일 기술이전 계약 체결식에서 계약서를 들고 보이고 있다.

중국 항암제 분야의 리더 중 하나인 회사"라며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중국 암환자들이 보다 빨리 IMC-002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상장제 개선·심사 전문화 韓유니콘, 국내 상장 견인”

손병두 KRX 이사장 간담회

“ESG 투자상품 지속 개발·공급
中企 리서치 지원 사업 확대
공매도 감시·사후관리 강화”

“부동산으로 자금이 가는 것보다 기업의 성장자금인 증시로 물리는 최근의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 시장 운영에 힘쓰겠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시장관리자로서 거래소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을 실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5대 핵심전략 및 20개 추진과제’도 내놨다.

우선 미래성장형기업(유니콘기업)이 국내 상장에 더 큰 매력을 갖도록 코스피 상장제도 개선과 심사프로세스를 전문화한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유망기업들이 미국 증시로 눈을 돌리면서 시장에서는 성장성 높은 기업들의 국내 증시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거래소는 지난 9일 코스피 시가총액 단독요건(1조 원)을 신설했다. 시가총액과 자기자본 요건도 기존 6000억 원,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 1500억 원으로 개정할 바 있다.

손 이사장은 “해외 증시로 간 기업들은 우리 증시의 규제문제와 개별 기업 상황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했는데 유니콘 기업이 해외 상장으로 발길을 돌려 많은 아쉬움 듣게 사실이고 동시에 우리의 증시 환경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차등의결권 도입 등을 논의 중이고 해외 증시에 상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장할 경우 많은 비용과 소송 리스크 등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 유망기업들의 국내 증시 상장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장 기준 요건 완화와 간소화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손 이사장은 “상장관리 제도를 철저히 관리해 기업의 부실징후를 더 빨리 캐치하고 시장 운영을 하면 이같은 위험은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며 “해외로 가는 기업들의 니즈를 잡기 위해 지금 운영 중인 제도를 꼼꼼히 개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BBIG(Battery·Bio·Internet·Game) 등 차세대 성장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성장성 중심의 상장제도를 개선하고 심사프로세스를 개선기로 했다. 기술특례 평가 절차도 간소화 한다.

또한 대형 상장사에 치중된 기업 리포트 문화를 개선하고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리서치 지원 사업을 확대해 그동안 기업분석 대상에서 소외된 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투자분석정보를 생산해 무상 배포하는 서비스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원하는 ‘ESG 테마형 ETF·ETN’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공급하고 ‘기후변화지수 3종 세트’를 출시하는 한편 ESG 투자상품 등 패스트트랙 상장 및 ESG 세그먼트 중 합정보표제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를 위해 공매도 제도개선 및 관리시스템 구축이 원활히 이행·운영 되도록 시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불공정거래 차단에 빈틈이 없도록 시장감시와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그는 “일부에서는 공매도 재개시 시장의 충격을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존 사례를 볼 때 의외로 충격이 크지 않았던 만큼 조심스러운 낙관을 가지고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잡아낸다는 자세로 철저히 시스템 등을 점검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연일 매도세를 펼치고 있는 연기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도 내놨다. 그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연일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장상황이 변했는데 너무 기계적인 원칙에 매몰된 것은 현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과거에 정해놓은 포트폴리오가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다면 신속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소신을 밝혔다. 구성현 기자 carlove@

한국증권금융 신임 사장에 윤창호 前 금융정보분석원장

한국증권금융은 윤창호(사진)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윤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금융위원회(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산업정책, 기업구조조정, 서민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등 국내외 다양한 금융정책을 담당했다.

한국증권금융 측은 “최근 국내외 금융 변동성이 확대되고,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윤창호 신임 사장은 자본시장 유동성 지원 및 투자자 보호라는 증권금융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산업지형 변화에 대응해 증권금융의 경쟁력을 높일 책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증권금융은 또 2021회계연도에 ‘자본시장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역량 제고’를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자본시장 안전판 역할 강화 △외적 성장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성장의 토대 마련 등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인아 기자 ljh@

증시에 부는 ‘개명바람’ 이유 있었네

기존 이미지 탈피 사업확장 의지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기업들이 기존 사명의 인식을 환기하기 위한 개명바람이 증시에 불고 있다. 기존 이미지를 벗고 보다 큰 뜻을 품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31일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최대 시멘트 기업 쌍용양회는 사명을 ‘쌍용C&E’로 바꾸기로 했다. 2025년까지 환경 사업 비중을 전체 이익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새 사명인 ‘쌍용C&E’는 기업 정체성인 ‘쌍용’에다 시멘트(Cement)와 환경(Environment)의 영문 앞글자를 딴 ‘C&E’를 더해 만들었다. 1962년 창사 이래 시멘트사업에 주력해온 쌍용C&E는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시멘트(양회) 단일 사업을 넘어 종합환경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탈석탄·친환경 자가발전 설비 마련 등을 담은 경영 비전 ‘Green 2030’도 내놨다.

박히트도 비슷한 취지로 사명 변경을 꾀한다. 박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연예기획사의 이미지라면 새 사명인 ‘하이브(HYBE)’는 여러 기획사를 산하에 두고 글로벌 엔터테

인먼트 플랫폼 사업자의 이미지를 강화했다. 하이브(HYBE)는 연결과 확장, 관계를 상징한다.

SK(주)는 투자 전문회사의 정체성을 반영해 영문 사명을 변경했다. SK(주)는 29일 주주총회에서 영문 사명을 ‘SK Holdings’에서 ‘SK Inc.’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장동현 SK(주) 사장은 “올해는 첨단 소재, 그린, 바이오, 디지털 등 4대 핵심사업을 본격 실행하는 원년으로 주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전문기투자자로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이 어려워진 후 재도약의 의지를 담은 사명 변경 기업들도 있다.

키위미디어그룹도 아센디오로 사명을 변경했다. 기존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사업구조를 다변화해서 드라마, 영화 제작 배급 등 K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아센디오는 SF소설 해리포터에서 주인공이 물에서 뛰어들어 오르게 할 때 쓰는 주문에서 따온 표현으로 물에서 솟구쳐 높이 날아오른다는 의미다. 김마누는 ‘더에이치큐’로 사명을 변경하고 하이난 면세점 등 국내외 면세점 사업 중심으로 토탈 트립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김우람 기자 hura@

주식 하루 200억 강제 매각 ‘빚투 개미’ 반대매매 공포

신용거래 규모 전년 대비 3.4배
조정장에 강제 청산 규모도 증가
주가 30% 하락 땀 12兆 ‘빚 폭탄’

“주변에서 더 오를거라 하길래 샀더니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한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주식 커뮤니티엔 빚을 내 주식을 샀다가 강제로 주식이 매각될 처지에 놓였다는 고민 글이 올라오고 있다. 장밋빛 전망만 믿고 상승장에 ‘빚투(빚내서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제때 계좌에 현금을 채워 넣지 못했거나 빚으로 산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자 증권사들이 주식을 되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반대매매를 한다는 것이다. 올해 하루평균 200억 원규모의 주식이 강제로 청산되고 있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9일까지 1조2653억 원 규모의 반대매매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따지면 1월 4588억 원, 2월 4064억 원, 3월 4000억 원 가량의 반대매매가 이뤄졌다. 하루 평균 218억 원의 자금이 반대매매로 날아간 셈이다. 조정장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강제 청산당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매매는 개인투자자가 미수 거래 사용 후 담보금을 맞추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신용거래용자 규모도 22조 원대로 뚝뚝을 불렀다. 지난해 3월 신용거래 규모가 약 6조5000억 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3.4배 늘어난 수치다. 개인투자자 유입이

늘면서 신용거래용자 규모는 연일 최고점을 찍고 있다.

연일 ‘빚투’ 규모가 커지자 금융당국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인 금융안정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1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주가가 30% 하락하면, 반대매매될 가능성이 있는 신용공여 규모가 약 12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규제는 소극적인 분위기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하자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용공여 추가담보 요구 및 임의상환 등의 조치 관련 예외 적용’ 특례를 내놓은 바 있다. 담보평가금액이 떨어지더라도 증권사들이 기계적 반대매매를 못하도록 권고한 조치다. 당초 특례 적용기간은 1년이었지만, 해당 규정을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특례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 증권사들이 기계적으로 반대매매를 하지 않도록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요구였다”며 “금감원 지시에 따라 신용거래 계좌 담보가 140% 밑으로 떨어져도 하루 후에 반대매매를 시행하도록 했는데, 고객 손실이 더욱 커진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반대매매는 시장 상황이 아니라 투자자 성향, 개별 종목 이슈이기 때문에 금융당국, 증권사 개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의 특례 연장 여부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인아 기자 ljh@

KB자산운용, ESG 펀드 수탁고 3兆 돌파

KB자산운용은 ESG 관련 수탁고가 1분기 만에 6000억 원 이상 늘면서 3조 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와 국내환경시설에 투자하는 대체투자형 2조1000억 원, 주식형 6400억 원, 채권형 2600억 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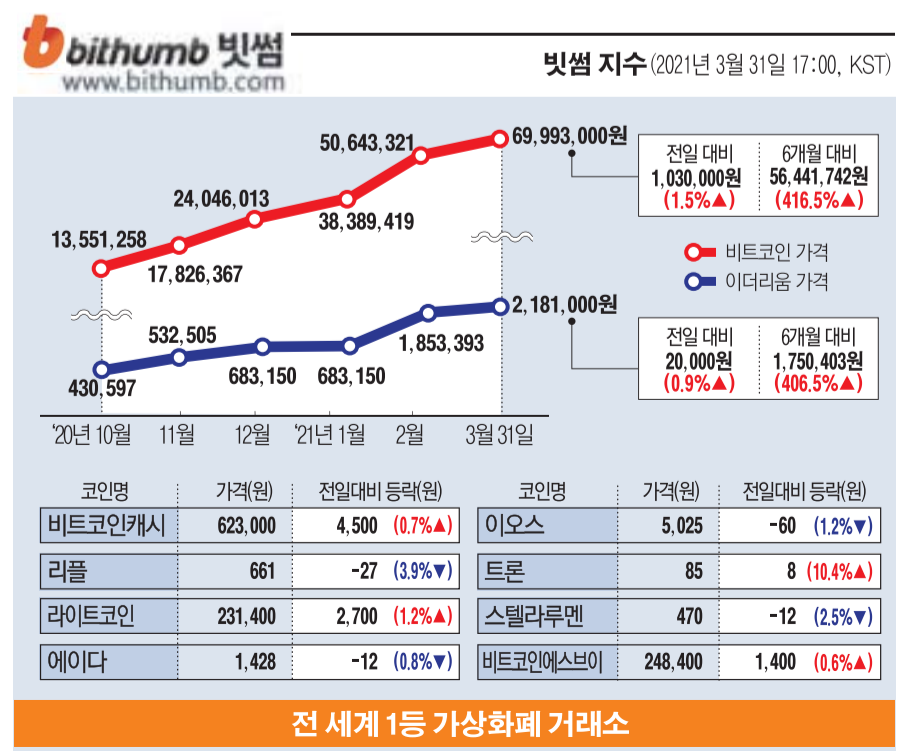
이는 기존 ESG관련 대체투자 시장에서의 탄탄한 입지를 바탕으로 최근 유가증권 부분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국내 최대 규모의 ESG 채권펀드(2200억 원)를 설정했고, 글로벌 ESG, 글로벌 수소경제 등 다양한 테마에 투자하는 펀드를 새롭게 선보인바 있다. 또한 KB자산운용의 신성장축인 ETF 부문에서도 ESG와 연계한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

다. KBSTAR ESG사회책임투자ETF, KBSTAR Fn수소경제테마ETF가 뛰어난 성과를 기록하며 연초이후 순자산이 각각 18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다양한 상품 라인업 외에도 KB자산운용은 운용에 있어 ESG 통합(Integration)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개명 전 최순실〉

檢 “최서원 미납 벌금 징수” 재산명시 신청

대법서 벌금 200억 확정됐지만 두 차례 납부명령에도 이행 안해 해외 은닉 재산 수조 원 의혹도 재산 목록 확인 통해 징수 추진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미납한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9일 최 씨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며 청구지법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관리행위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검찰은 최 씨가 법원에 공탁한 78억여 원의 지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최 씨가 두 차례의 납부 명령에도 벌금 200억 원을 내지 않자 검찰은 최 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벌금 대부분을 징수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최 씨의 재산 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이 있으면서 빚을 갚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이면 최 씨는 법정에 나와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재산명시 목록에는 유상양도나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 거래내역, 권리 이전 내용, 명의신탁, 신탁재산 등을 모두 적게 돼 있다. 거짓으로 재산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통해 최 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 은닉한 최 씨의 재산이 수조 원에 이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안민석 명예훼손 건 진술서’라는 자필 문서를 통해 “저는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도 없다”며 “재산이라고는 유치원을 하던 미승빌딩을 팔아 딸이 겨우 경기도에 집을 구하고 변호사비와 추징금을 낸 게 전부”라고 밝혔다. 김중용 기자 deep@



‘성폭행 의혹’ 기성용, 경찰서 출석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성용이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기성용 측 변호인은 성폭행 의혹 제기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달 22일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초·중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재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는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조항에서 초·중등교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현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해 직접적인 보호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초·중등학교 교원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높은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입법판단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현저히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본래 목적 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공익이 우선...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정당”

법원 “서민 주거안정 기여” 토지소유주 패소 판결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이 토지 소유자들의 사익보다 크다면 해당 토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19일 과천시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토부는 2019년 10월 과천시 과천동과 주암동, 막계동 일부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정하고 공공주택사업 진행 계획을 고시했다.

이후 해당 지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는 ‘단절토지’인 만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야 하고 공공주택지구에도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절토지란 도로·철도·하천으로 인해 단

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서 사·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토지를 말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단절토지인데도 해당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지 않아 공공주택지구에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공공주택지구로 포함하기 전 토지의 현황 및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도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공주택지구에 국민임대·영구임대 주택 및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이 건설될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사익이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니경연 기자 contest@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광고학신(新)론

뉴 미디어 시대를 이끄는 생생한 광고 현장의 이야기!



광고와 테크놀로지의 결합!
광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패러다임 반영!

- 가장 경쟁력이 무의미한 뉴노멀 시대의 마케팅 전략
- 콘텐츠와 광고의 융합, 신유형 광고와 커머스 세계
- 4대 매체를 넘어서는 해체형 특성과 미디어 플랫폼
- 디지털 미디어에 적합한 크리에이티브의 핵심 원리

디지털 시대의 광고학신론
김병희, 유승엽 외 공저 | 544쪽 | 28,000원

디지털 시대의 광고 마케팅 기상도
김병희 저 | 14,000원

디지털 시대의 마케터를 위한 광고 마케팅 인사이트

기업을 살리는 설득의 기술
조재형 저 | 14,000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미래형 고객 커뮤니케이션 전략

광고의 미래 넥스트 10년
한국광고학회 편저 | 15,000원

광고학계에서 바라본 최신 광고 키워드와 트렌드

디지털 변화 속 광고PR 산업
한국광고홍보학회 편저 | 17,000원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 시대 속 실무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 광고

(주) 한지서 | 02-330-5114 | Fax 02-324-2329 | SINCE 1992

교육부, '학위 장사' 경희대 수사의뢰

대행업체에 1인당 100만 원 대가 지급 경영대학원생 유치

경희대 경영대학원이 대행 업체에 1000여 명의 학생모집을 의뢰한 뒤 '학위 장사'를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에서도 대행 업체에 학생 유치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희학원·경희대 등의 종합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경희대 경영대학원은 외부 대행업체를 통해 학생을 모집한 뒤 그 대가로 14억 원을 지급, 1인당 약 100만 원을 주고 학생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학과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부에 신고하고 산업체와 사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경희대 경영대학원은 이런 절차 없이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협약서를 즉시 첨부하는 식으로 석사과정 학생들을 모집했다. 2015년 전기부터 2019년 후기까지 총 1039명의 학생을 이런 형태로 석사과정 계약학과에 합격시켰다.

경희대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도 대

행 업체에 맡긴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직접 모집해야 할 학습자를 4개 업체에 위탁해 대행관리, 홍보비 등 합계 15억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경희대 관계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직·인사 분야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다. 세 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돼 금고형을 선고받은 직원을 퇴직 처리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경희대 정관에 따르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감봉' 징계만 내렸다.

학교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14건 적발됐다.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심야시간 등 비정상적 시간대에 사용한 금액은 299만 원으로 교비 회계에서만 집행했다. 교육부는 관계자 12명에게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희대 감사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약 10일간 감사 인력 23명을 투입

해 진행됐다. 경희학원과 경희대는 이번 감사에서 총 55건의 지적을 받았다. 중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경희대 관계자는 모두 320명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경고 4명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안동대, 학교법인 건강교육재단 및 건양대, 국사편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안동대는 교직원 이 근무시간 중 학위과정을 무단으로 수강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수강 시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했다. 건양대는 연구지원비(논문게제료)를 수령한 동일 논문을 게재일자를 달리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제출하고 논문게제료 100만 원을 재차 수령해 전액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안동대와 건양대는 각각 58건·209명, 47건·130명의 지적사항과 신분상의 조치가 내려졌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1건의 비위가 적발됐으며 34명에게 징계 통보됐다. 손현경 기자 son89@



대전교육청 '정신건강거점센터' 운영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나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정신건강거점센터를 설립해 4월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정신건강거점센터 관계자들이 손가락 하트를 하며 밝게 웃고 있다. 사진제공 대전시교육청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6곳 신규 선정

전체 181개로 증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은 31일 국내 6개 지자체를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는 등 '2021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평생학습도시 중 특성화 유형으로는 경기 고양시, 서울 영등포구 등 15개 지자체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연계 평생학습사업 유형에는 강원·경남·부산·충남 등 4개 시·도가 각각 선정됐다.

2001년 시작된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올해 신규 평생학습도시로는 △강원 양구군 △경북 상주시 △경북 영천시 △서울 동작구 △충북 괴산군 △충북 영동군 등이 선정됐다.

이로써 평생학습도시 수는 총 181개로 늘었다.

기존 평생학습도시 중 54개 지자체가 참

여한 특성화 지원 부문에서는 총 15곳이 선정됐다. 지역자원 연계 강화 유형으로는 경기 고양시, 경기 화성시 외 5개 지자체가 뽑혔다.

지역특화 프로그램은 △미래 디지털 역량 강화(서울 영등포구, 경기 이천시, 부산 기장군) △환경 친화 교육 및 도시재생(경기 시흥시, 전남 곡성군) △평생교육 활동가 양성(경남 김해시, 부산 금정구) △지역 산업 및 일자리 연계(전북 완주군) 등 유형별로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국평원은 올해 기초 지자체인 평생학습도시와 광역 지자체 소속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연계 유형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유형에 선정된 강원·경남·부산·충남 등 4개 시·도는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기존 사업을 내실화 하게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위해 교육부도 지자체 등 지역 주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주요 대학 '학생부교과' 확대·종합전형도 개편

입시특특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적용되면서 서울의 주요 대학에 학교장 추천 성격의 학생부교과전형이 확대된다.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변화가 있다.

이투데이는 31일 입시업체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주요 대학들의 2022학년도 신설 전형을 살펴봤다.

진학사 등에 따르면 2021학년도 입시에서 교육부가 건국대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교과성적 위주의 지역균형 선발을 권고하면서 올해부터 학생부교과전형을 도입한다. 애초 이들 대학은 2021학년

건국대 등 수도권 대학 대상 교과성적 위주 균형선발 권고

입시에서는 해당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다.

대학 간 선발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건국대, 경희대 등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만 동국대, 세종대, 연세대 등은 배제했다. 단 최저기준 미적용 대학인 동국대는 교과 성적 외에 서류종합평가를 40% 반영하며 연세대는 2단계에서 면접평가를 40% 반영한다. 이 전형은 고등학교 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방 고등학교의 무분별한 학생 추천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는 등 추

천 인원 기준에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입시전문가들은 학생부교과전형의 입시 결과는 과거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학생부교과전형 선발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중복으로 추천하지 않는 것을 선호해 성적이 비교적 낮은 학생도 추천받을 수 있게 됐다"고 조언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수시 선발인원이 지난해 비해 5463명 줄어드는 것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이 중 서울지역 대학의 선발인원 감소 폭이 4139명으로 매우 높다. 건국대 KU 학교추천, 경희대 고교연계, 동국대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 등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www.hauri.kr

“새로운 바이로봇으로 보안을 강화하다”

더 강력한 기능으로 새로워진 통합백신 - 바이로봇

- 듀얼엔진과 행위기반기술이 적용된 통합보안솔루션 - 바이로봇 시큐리티 1.0
- 다양한 보안위협으로부터 서버를 안전하게 보호 - 바이로봇 시큐리티 서버 1.0
- 조직내 백신 및 보안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 바이로봇 매니저 1.0

(주) 하우리 | 서울시 동작구 만안로 104 | 대표전화 02-3676-1100

BEYOND
GOLF



현존 드라이버 사상 최대사이즈의 스위트팟 영역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C.O.R 0.87 이상의 고반발 드라이버 기준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스윙 2,000번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사이즈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세계 최대의 페이스/스위트팟 넓이를 통해 임팩트시 빗맞아도 최대한 똑바로 가는 타구를 제공
- 아마추어 골퍼의 약점인 슬라이스와 훅이 발생할 확률을 현저히 줄여 자신감 있게 스윙을 할 수 있다
- 총중량 223g-255g의 최경량 수준으로 가볍고 편해서 다루기가 매우 쉬우며 부담감이 없다. 스윙스피드가 빨라져 더 긴 비거리가 나간다.
- 비온드 센터 방문시 PGA프로들이 사용하는 최신의 가장 정확한 실내 분석 시스템으로 고객의 스윙을 정밀 분석 / 비거리에 초점을 둔 1:1 원포인트 레슨 제공
- 런을 극도로 많이 나오게 하는 비온드만의 I.M.T(Impact Maximum Technology)구조로 최대한 스프링을 억제하여 착지 후 다량의 런 발생으로 비거리 상승 효과
- 근력이 다소 떨어지는 시니어층에게 비거리와 방향성을 좌우하는 모든 요소를 극한까지 높인 새로운 성능의 차세대 고반발 드라이버



기존 고반발 클럽보다 더 나간다 | 비온드는 비거리로 증명합니다

비온드골프 강남점 / 분당점

비온드 센터 방문시 반드시 고객님의 클럽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온드의 "특별한 비거리"를 실감하기 위해 자신의 최대 비거리가 나오는 클럽과 비교하면서 시타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 결과 10명중 9명이 '비온드'쪽이 더 긴 비거리와 늘어난 런이 나온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

“특금법 시행, 가상화폐거래소 옥석 가려질 것”

〈특정금융거래정보에 관한 법률〉

‘금융규제 전문’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신고 후 수리’ 사실상 허가제, 중소 거래소 모두 없어질 수도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 향후 단행법률로 업권법 등장 가능성

“특금법 개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옥석이 가려질 겁니다.”

강현구(사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1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영향을 이렇게 전망했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는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광장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만들었다.

강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을 거쳐 2007년 광장에 합류한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다. 핀테크 자문 업무를 비롯해 금융규제 전반, 금융법을 자문 관련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률에서 ‘가상자산’이라는 법적 정의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처음 등장했다”며 “가상화폐 중개, 보관, 가상화폐를 통한 매매 등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올해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수리되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대표자·임원이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것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일반적인 신고라기보다 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제와 비슷하다”며 “요건 충족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옥석이 가려지면서 4대 거래소 외에 중소·영세 거래소는 모두 없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상화폐거래소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사업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다.

투자자로서는 특금법 시행을 계기로 향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업권법이 마련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법률이다 보니 FIU에 신고를 하긴 하지만 정식 영업법은 아니다”며 “향후 단행법률로 업권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국, 유럽 등의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과 투자 관심 등 흐름을 정부가 무조건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이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에 과세하겠다고 하는 등 변화도 시작됐다.

강 변호사는 “업권법이 마련되면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은 당연히 투자할 것이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개인투자자도 더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가 되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등 붐업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앞으로 파장을 일으킬 만한 시초가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다만 “아직 정부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더라도 가상화폐를 정식으로 제도권 화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면서 선부르게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경제정책비서관에 이형일 차관보
‘반부패’ 김기표·‘디지털혁신’ 김정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경제정책비서관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내정하는 등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왼쪽 사진부터) 법무법인 현진 대표 변호사, 경제정책비서관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디지털혁신비서관에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기표 선임 반부패비서관은 사법시험 40회 출신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등을 거쳤다. 이형일 선임 경제정책비서관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쳤고 지난해에는 청와대에서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도 일했다. 김정원 선임 디지털혁신비서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 추진단 부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인터넷융합정책관 등의 경력을 가졌다. 정일환 기자 whan@

“고객 향한 마음이 LG가 추구하는 혁신”

구광모 회장 ‘LG 어워즈’ 시상... ‘고객 감동 실천 특별상’ 신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객 가치 실천’을 경영 화두로 제시하며, 최일선 고객 접점에서 고객 감동을 실천한 서비스 엔지니어들을 격려했다.

LG는 30일 서울 마곡에 있는 LG 사이언스파크에서 작년 한 해 제품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객 가치를 창출한 성과를 격려하고 전파하기 위한 ‘LG 어워즈(Awards)’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LG는 이날 3개 부문에서 최고의 고객 가치를 만든 팀에 각각 최고상인 ‘일등LG상’을 시상했다. 우선 ‘고객 접점’ 부문에서는, TV 수리 과정에서 가족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감동을 실천한 LG전자 흥성 서비스지점 임호성 주임이 수상했다. ‘시장 선도’ 부문에서는 세계 최초로 게임 전용 G-Sync(화면 끊김을 최소화하는 호환 기능) 인증을 획득

하고 OLED TV의 뛰어난 응답 속도와 명암비를 더한 ‘48인치 OLED TV’를 출시해, 고객을 세분화한 ‘최고의 게이밍TV’라는 팬텀화를 형성한 LG전자·LG디스플레이 프로젝트 팀이 수상했다. ‘기반 프로세스’ 부문에서는 배터리 공장 증설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AI를 활용한 자동화 등을 통해 최고 수율을 달성해 적기에 고객 요구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법인 팀이 수상했다.

올해 신설된 ‘고객 감동 실천 특별상’은 고객 접점에서의 응대 과정에서 고객의 작은 불편까지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객 감동을 이끌어 낸 13개 팀이 수상했다. LG는 ‘고객 감동 실천 특별상’ 수상자와 수상은 못했지만 고객 접점 현장에서 수상 후보로 추천된 구성원들에게도 금장



구광모(왼쪽 세 번째) LG그룹 회장이 30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 어워즈(Awards)’ 시상식에서 일등LG상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의 ‘LG고객감동 배지’를 수여했다.

LG는 구광모 회장이 ‘고객 가치 실천’을 경영 화두로 제시한 이후, 고객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에서 시작해 고객에 대한 세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고객 감동을 완성하고 LG의 팬으로 만들어 나가며 실행을 가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계열사별로 고객 가치 혁신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고객 경험 단계별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날 구 회장은 수상자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고객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바로 행동하고 도전하는 것이 LG가 추구하는 혁신”이라며 “오늘 보여준 ‘진실된 마음’들이 고객의 삶을 바꾸는 더 큰 혁신으로 발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개성공단기업협 이재철 회장 선출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이재철 제씨름 대표이사를 제9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1년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총회’에서 이재철 대표가 제9대 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해 추대 선출됐다.



이재철 회장은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단 재가동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개성공단기업자 산 현황 확인을 위한 개성공단 방문 추진에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기범 기자 modest12@

‘4월의 과학기술인’ 한승용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4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한승용 교수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재단은 한승용 교수가 초소형·초경량 무절연 고온초전도자석을 개발하고, 직류 자기장 세계 신기록



을 달성해 전기·전자기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고 초전도자석 연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 교수의 연구결과는 2019년 6월 13일 네이처(Nature) 본지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소개됐다. 조남호 기자 spdran@

인사

◆교육부 △대통령비서실 박대립 △중앙교육연수원 배정익 △경북대 행정지원부장 전용진 △경북대 입학과정 이상준 △부경대 산학협력부장 이일준 △한국교원대 입학인재관리과장 최인성 △부산대 국제협력실장 정봉규

◆고용노동부 ◇국장급 임용 △정책기획관 박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승진 △선임연구위원 김경성 마상진 이명기 △연구위원 김상호 김종인 박성진 최용호 △책임행정원 이정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부원장 조민수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장 최광남 △국가슈퍼컴퓨팅본부장 이식 △

정책부장 최희석 △경영지원부장 송장현 △기획부장 김민기

◆한국기계연구원 △제조장비연구소장 박전홍 △대외협력실장 서지현

◆카카오뱅크 ◇임원 신규 선임 △준법감시인 권태훈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 김재곤 ◇임원 이동 △내부감사책임자 유호범

◆DB금융투자 ◇보임 △Equity 운용본부장 김현구 △FICC 운용팀장 김창섭 △종합금융3팀장 강도형 △기관금융팀장 김범진 △IT 기획파트장 이재광 △IT 개발파트장 박상배 ◇전보 △매체관리파트장 이재성

◆신영증권 ◇부장 승진 △대치센터 이재용 △상품개발부 최윤미 △서면지점 배철민 △IT 업무지원팀 정의석 △FSS 부한

동민 △영업부 박세진 △ECM부 정기영 △자산운용부 김원태 △크레딧 마켓부 김보성 △프로젝트금융부 김충기 △해운대지점 이상순 ◇부장 전보 △개발금융부 양병우 △자산운용부 공영권

◆NH헤지자산운용 ◇본부장 신규선임 △경영지원본부 김남영

◆이스트프링자산운용 ◇상무 승진 △주식운용본부 김흥직 △QPS본부 방대진 △AI본부 김성훈 ◇이사 승진 △컴플라이언스&리스크관리본부 컴플라이언스팀 문성희 △인사팀 류지현

◆레이크투자자문 △상무 전문찬

◆셀트리온그룹 ·셀트리온 ◇사장 승진 △윤정원 중국법인 대표이사 △오명근 중국법인 대표이사 ◇전무 승진 △구윤모 엔지니어링본부장 △이수영 신약연구본부

장 ◇상무 승진 △박재휘 허가본부장 △승수는 임상운영 1담당장 ◇이사 승진 △김성현 의학본부장 △이준원 제품분석 1담당장 △최문선 임상운영 2담당장 ·셀트리온 제약 ◇이사 승진 △김동희 종합병원 2사업담당장 △김주범 품질경영담당장 △우영제 케미컬생산담당장

◆힐라코리아 〈승진〉 △부사장·COO 정승욱 △리테일영업본부장 홍인표 △어패럴본부장 박재성 △힐라영업사업부장 정성기

◆베스파 △대표 이완수

◆KBS비즈니스 △시설사업부장 박정원 △대구지사장 손성광 △시설사업부 차장 임상우

◆에너지경제신문 △상무(편집국장) 정훈식

폭스바겐 새 법인명 ‘볼츠바겐’ 하루 만에 ‘농담이었다’ 해명

독일 폭스바겐의 새 미국 법인명인 Voltswagen(볼츠바겐)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회사 측이 해명에 나섰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폭스바겐 대변인은 “(사명 변경은) 농담(joke)이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누구에게도 오해를 살 의도는 없었다”며 “그저 사람들이 전기차 ID.4에 관해 얘기를 나누도록 하기 위한 마케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회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미국의 새 법인명을 볼츠바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게시했다가 곧바로 삭제했다. 자료에는 기존 버지니아 본사와의 업무 분배 계획과 테네시 공장 견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WSJ는 회사 관계자 말을 인용해 회사의 농담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관계자들은 미국 법인에 서둘러 마케팅을 멈추도록 했다고 전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부음

▲이덕우(덕양 명예회장) 씨 별세, 이상복·치윤(덕양가스 대표이사)·현태(덕양 대표이사) 씨 부친상, 김기철(덕양에너젠 대표이사) 씨 장인상 = 31일, 울산영락원 301호, 발인 2일 오전 6시 30분, 052-270-8500

▲김용철 씨 별세, 김승기(소중환호안과 원장) 씨 부친상, 김우영(경북대 물리학과 명예교수)·김동찬(약사)·문병훈(연합뉴스 총괄데스크팀 선임) 씨 장인상 = 31일,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02

▲김재균 씨 별세, 최성임(남양주시 시의원) 씨 시부상 = 31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5호, 발인 2일 오전 10시, 02-3010-2000

▲최영자 씨 별세, 김창곤(전 조선일보 전북주재기자) 씨 장모상 = 31일, 전주 삼성장례문화원 301호, 발인 2일 오전 9시 30분, 063-584-4300

자본시장 속으로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비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은 구조적인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강점인 IT 세트와 완성차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해야 할 텐데,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있는 옛것을 추억하는 경우가 많다. 사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냈다. 지금 최첨단 IT와 자동차 산업의 상황이 비슷하다. 코로나 이후 이연 수요가 몰리다 보니 예상치 못했던 성숙한 범용 부품의 공급이 모자라는데 그 과장이 심각하다. 비메모리 반도체 이야기다.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의 중심에는 PMIC(전력관리칩)가 위치한다. 대부분의 PMIC는 150nm(나노) 노드 공정과 8인치 웨이퍼에서 생산되고 있다. TSMC와 삼성전자가 7nm와 5nm 공정 경쟁을 하는 시기에 150nm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로 들린다. PMIC의 일부는 80nm 및 40nm 공정과 12인치 웨이퍼로 이전 생산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은 올해 내내 지속할 전망이다.

파운드리 업체들이 PMIC 수요에 우선 대응하는 과정에서 DDIC(디스플레이구동칩), 저화소 이미지센서, 보급형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RFIC(무선통

신칩) 등에 이르기까지 공급 부족이 나비효과처럼 퍼지고 있다.

배경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찾아보자. 수요 측면의 키워드는 역시 언택트와 5G다. 원격교육과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노트북 및 태블릿 PC, 게이밍 PC, 데이터센터 관련 부품 수요가 강세다. 5G 보급과 함께 스마트폰과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PMIC 소요량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카메라와 이미지 성능을 강화하는 추세도 PMIC의 수요 증가 요인이다.

여기에 과잉 주문과 재고 축적이 수요 상황을 왜곡시키고 있다. 화웨이의 몰락을 계기로 샤오미, 오포, 비보 간 패권 싸움이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고, 가수요를 촉발하고 있는 듯하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웨이퍼 공급 부족은 과거 보수적 설비 투자가 초래한 결과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웨이퍼 업계 전반적으로 설비 투자에 소극적이었

다. 과잉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2019년과 2020년에 설비 투자가 많이 늘었지만, 주로 TSMC가 5G 스마트폰과 모바일 PC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7nm와 5nm 공정에 대한 투자를 늘린 데 따른 것이다. 향후 2023년까지 선두권 파운드리 업체들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사이클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역시 7nm 이하 신규 팹 위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40~120nm에 걸친 성숙 노드 공정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노쇠한 성숙 공정은 수율을 개선하기도 더욱 어렵고, 신규 라인을 짓더라도 생산능력 규모 면에서 제약이 크다.

여기에 미국 텍사스 한파, 일본 지진과 화재, 대만 물 부족 등 잇따른 자연재해가 공급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제품은 퀄컴의 스마트폰용 RF(무선) 및 송수신칩이다. 7~8주간의 가동 중단으로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량의

10~12%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전자의 OLED용 DDIC도 오스틴 공장 중단의 피해 제품이다. 3분기까지 대략 1~2천만 개 생산이 지연될 것이다.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르네사스는 일본의 지진 영향과 더불어 화재사고까지 입었다.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은 하반기에 일부 완화되었지만,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지속될 수 있고, 자동차 분야가 가장 심각할 것이다. 공급 부족을 겪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은 상반기에 이미 10~20% 상승했다. IT 세트와 완성차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커질 것이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은 구조적인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강점인 IT 세트와 완성차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해야 할 텐데,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과학 놀이터

한중탁
한국전기연구원
나노융합연구센터장



인류는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 폭설, 산불 등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유엔은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올해 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각국에 요청했다. 파리협정 당사국인 우리나라도 지속발전 전략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1일 탄소중립 선언 후 2050 저탄소발전전략 보고회의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 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국제질서"라며 "세계 조류와 동떨어져서 따로 가다가는 탄소국경세 등 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과 이미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탄소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 등으로 인해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근원지에서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포집, 활용, 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하는 CCUS 기술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최근 1억 달러의 상금을 내걸고 1기가톤(항공모함 1만 대 분량) 수준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경연대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 포집 기술이 지구 온난화 현상을 해결할 '게임 체인저'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수소, 태양광, 풍력에너지 등)와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전기난방, 전기차 등 전기화(electrification)의 영향으로 2040년이면 최종 에너지 수요 중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보다 약 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전력 소모가 큰 산업기기의 최저소비효율제 확대 및 에너지 다소비 건물·공장에 에너

지관리시스템 보급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탄소소재가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산업적으로 전기에너지 소비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전동기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에너지의 약 53%를 전동기 구동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기에너지의 약 54%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체 에너지의 약 2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사용량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고효율 전동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최저효율제(MEPS) 정책이 시행 중이다. 지난 기고에서 언급했던 탄소나노튜브 기반 경량 와이이어는 기본적으로 구리를 절감하여 구리 생산 및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줄일 수 있고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와 같이 에너지 소모가 큰 전력기기의 효율을 높여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로 쓰이는 이차전지에는 흑연이라는 탄소소재가 사용되고, 이차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전기전도성 소재로 탄소나노튜브, 그래핀과 같은 탄소나노소재가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

다. 아울러,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미래 친환경 자동차의 하나인 수소전기차도 백금나노촉매의 반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탄소소재로 이루어진 담지체를 사용하고 있다. 수소탱크 용기 또한 탄소섬유라고 하는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탄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광산에서 채굴하는 인상흑연 외에는 인공적으로 제조해야 하는 것이 탄소소재이다. 특히 탄소나노소재는 가격이 비싸서 산업계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고가의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차전지, 고분자복합소재 등 다양한 분야로 용도가 확대되고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기초연구를 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다시금 탄소나노튜브에 대한 관심과 응용 연구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가 우리의 생명줄을 잡고 있지만, 탄소소재는 우리를 살리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 탄소나노소재의 가능성

이투데이, 말투데이

☆ 밀란 쿤데라 명언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체코의 시인·소설가. 시·평론과 희곡·단편·장편 등 어느 장르에서나 뛰어난 작품을 발표했다. 대표작은 장편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18세기의 사랑과 오늘의 사랑을 대비시켜 현대가 상실한 '느림'의 미학을 강조한 장편 '느림'도 유명하다. 오늘 그는 태어났다. 1929~.

☆ 고사성어 / 청능유용(淸能裕容)
맑으면 능히 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청렴하면서도 능히 너그럽고 [淸能裕容], 어질면서도 결단을 잘 내리며, 총명하면서도 남의 결점을 잘 들추어내지 않고, 정직하면서도 바른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면, 그것은 이른바 꿀을 넣은 음식이면서도 달지 않고, 해산물이면서도 짜지 않은 것과 같으니,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덕이다." 출전 채근담(菜根譚).

☆ 시사상식 /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은퇴 크레바스'라고도 한다. 직장인의 경우 50대 중반에 은퇴해 60대에 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 정도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에 생계를 위협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크레바스 공포'라 부른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동네
한자어 '동내(洞內)'에서 왔다. '네'로 바뀐 '내'의 음이 이 말에서만은 '네'로 바뀌어 고유어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한자어의 본음이 변하여 널리 퍼진 음을 '속음'이라 한다.

☆ 유머 / 이럴 땐 아무 말이 없다
누나와 엄마가 설거지를 했다. 아빠와 아들은 TV를 보는데 쟁그랑 소리가 났다. 아빠가 아들에게 "누가 집시 깎는지 보고 와라!"라고 말하자 바로 대답했다. "엄마깎아!" 아빠가 "어떻게 아니?"라고 되물자 아들의 대답.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나경연 사회경제부/contest@



햇님달님 부장판사를 아시나요

을 때 어른이 됐다고 느낀다. 이면에 뭔가 숨은 뜻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꽤 빈번하게 들 때 사회에 물들었구나 싶다.

최근 법원을 취재하면서 접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햇님달님'이었다.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세대 차이에 관해 얘기를 나누던 중 듣게 된 일종의 은어다. 법관의

세대 차이라는 딱딱한 대화 주제에서 갑자기 등장한 동화 같은 단어가 귀가 번쩍 뜨였다.

'햇님달님'은 후배들을 괴롭히는 부장판사를 지칭한다. 다만 그 괴롭힘의 방식에 따라 햇님파와 달님파가 나뉜다. 햇님 부장은 밝게 빛나서 모두가 해당 부장이 쏜

대라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햇님 밑의 젊은 판사는 상사 모시기의 고충에 대해 주변의 격려와 위로를 받는다. 반면 달님 부장은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후배를 괴롭힌다. 달님 밑의 판사는 그 역경과 고난을 혼자 감내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법조계에는 이미 권위주의적인 부장판사를 빗댄 '병커'(bunker·골프장 코스 중 모래가 들어 있는 우묵한 곳)라는 은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런데 왜 굳이 햇님달님과 같이 예쁜 단어를 쓸까. "잔대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를 써야 후환이 없다." 괴롭히는 상사를 햇님달님으로 불러야 하는 법관 사회. 변하지 않는 경직된 조직 문화를 반영하는 현실적인 답변이 씩씩하다.

'옛 휴대폰 가져오면 신형으로 교환'
휴대폰 대리점 유리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홍보 문구다. 그러나 막상 상담을 받아보면 교환보다 처분이란 단어가 어울린다. 동네마다 '모든 메뉴 5900원부터' 간판이 세워진 음식점이 하나씩 있기 마련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가 보면 막상 먹을 만한 음식은 최소 7000원이 넘는다.

뭐니뭐니 해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 면접 탈락 문자메시지다. '지원자님의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는 문자는 내가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 회사는 안타까움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단어나 문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

‘징벌’이 된 주택 보유세

세금 걷는 기술은 ‘거위털 뽑기’에 비유되곤 한다. 거위털(세금)을 뽑더라도 거위(납세자)가 아프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상 장 바티스트 콜베르가 한 말로, 거위털 뽑기는 오늘날에도 바람직한 자세 원칙으로 통한다.

그런데 정부는 얼마 전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공시가격 인상 얘기다. 정부는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19.08% 올렸다. 2007년(22.7% 상승) 이후 14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작년(5.98% 상승)과 비교해도 세 배 넘게 올랐다. 세종시가 70.68%나 치솟았고, 서울·경기·대전·부산·울산 등도 1년 새 20% 안팎으로 뽐박질했다. 가히 ‘역대급’ 인상이라 할 만하다. 집값 급등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상황까지 겹친 영향이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70.2%까지 끌어올렸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웃돌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 대상에 오른 공동주택(1가구 1주택 기준)도 52만4620채로 작년보다 70%가량 불어나게 됐다. 서울에선 아파트 6채 중 한 채꼴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는 몇 년 전만 해도 주로 강남권에서 극소수 자산가가 내는 ‘부자세(稅)’로 통했다. 이제는 아니다. 웬만한 중산층도 피할 수 없는 ‘보편세’가 돼 버렸다. 공시가격은 비단 공동주택만 오른 게 아니다. 올해 서울 개별 단독주택도 전년 대비 9.83% 올랐다.

데스크칼럼

조철현

부국장 겸 부동산부장



올해는 종부세율 인상도 예정돼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6월 이후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율은 지난해 0.6~3%에서 올해 1.2~6%로 오른다.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로 높아진다.

후폭풍이 거세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 놓고 (세금) 부담은 우리가 져야 하느냐” 등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마땅한 수입 없이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은퇴자의 경우 세금 부담에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할 상황에 내몰릴 판이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늘어나는 게 맞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를 좁히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상승 폭과 속도다. 아무리 명분이 좋은 정책이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얻어야 하거나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면, 그것은 세금 부과가 아니라 갈취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만 불어나는 게 아니다. 건강보험료도 큰 폭으로 오르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은퇴 고령자 2만 명은 보유 주택 공시가격

이 9억 원을 넘어서는 바람에 당장 11월부터 매달 평균 12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마땅한 현금 수입이 없는 이들 처지에선 월 12만 원도 일상이 깨질 수 있는 부담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들도 비상이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6억5000만 원을 넘으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서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5%에서 내년엔 100%로 오른다. 이러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져도 보유세가 더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징벌적 과세는 반드시 시장의 보복을 부른다. 집주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월세 등 임대료를 올려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털을 세게 뽑았다간 거위가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듯이 무리한 세금 인상은 거센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다. 더욱이 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주먹구구로 이뤄졌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지 않은가.

공시가격 인상 속도는 납세자가 감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세금은 거위 깃털 뽑듯 해야 한다는 콜베르의 경고처럼, 공시가격 산정 때 연간 인상률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란다. choch21@

시설

경기회복 선부른 낙관 말고 백신 확보 총력을

3월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많이 좋아졌다. 2월 산업생산도 큰 폭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경기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 전 산업 업황BSI가 83으로 2월(76)보다 7포인트(p) 올랐다. BSI는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기업의 판단과 전망을 나타내는 심리지표로, 100을 밑돌면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긍정적인 곳보다 많고 100 이상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이달 수치는 2011년 7월(87) 이후 9년 8개월 만에 가장 높다. 올 들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활동이 늘면서 소비회복에 기대가 높아진 영향이 크다. 제조업이 2월 82에서 89로, 비제조업이 72에서 77로 올랐다. 제조업의 대기업(93→99)과 중소기업(69→78), 수출기업(94→97)과 내수기업(74→85) 모두 상승했다. 비제조업에서는 도소매업이 크게 호전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쳐 산출한 3월 경제심리지수(ESI)도 지난달보다 4.7p 오른 101.3을 기록해, 2018년 6월(100.4) 이후 처음 100을 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지난달 전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2.1% 증가했다. 제조업이 반도체와 화학제품 생산 호조로 4.3% 늘었다. 서비스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완화에 힘입어 숙박·음식점

업이 20.4% 급등하면서 1.1%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회복의 고무적인 신호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크다. 최대 변수인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가라앉지 않는 실정이다. 31일에도 신규 확진자가 506명 늘었다. 3차 유행이 본격화한 작년 1월 이후 하루 300~400명씩 나왔고, 최근 일주일 동안에도 400~500명 수준에서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백신 보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이 문제다.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정부가 계약한 물량의 제때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4월부터 일반인 접종에 나설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국내 도착이 4월 중순 이후로 미뤄졌고 물량도 줄었다. 2분기부터 순차 도입키로 한 노바백스, 모더나, 안센 등의 백신은 언제 들어올지 불투명하다.

11월까지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정부 목표도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백신 접종이 많이 뒤처졌다. 집단면역 지연이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2분기 이후 경기회복을 낙관하는 모습이다. 선부르다. 한국은 백신 접종이 늦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할 대 표적인 나라로 꼽히고 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백신의 조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다급하다.

노트북을 열며

하유미
정치경제부 정치팀장



“거짓말쟁이는 항상 맹세를 아끼지 않는 법이죠.”

프랑스의 극작가 피에르 코르네유의 희극 ‘거짓말쟁이’에 나오는 등장인물 B의 대사다. 주인공 A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벼락을 맞을 거예요”라고 말한 것에 대한 맹목한 일갈이다.

A는 거짓말을 일삼다가 곤경에 빠지는 인물이다. 자신이 한 거짓말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새로운 거짓말을 또다시 만들어내며 악순환을 반복한다. 물론 그의 거짓말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커다란 악의는 없다.

A를 보면 정치인들이 떠오른다. 보다 범위를 좁히자면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이 좀 더 가까울 듯싶다. 이들은 요술지팡이를 휘둘러야만 실행이 가능할 것만 같은 거품 공약들을 남발하고, 속 빈 공약들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한다. 또 후보 간 비방전이 가열될 경우엔 어김없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하게 된다.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나 악의는 없다. 그저 본능이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4·7 재보궐 선거가 코앞이다 보니 더와 닿는다. 심지어 오늘은 만우절이다.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내곡동 의혹이 핫하다. 시종일관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오 후보의 ‘처가가 상속받은 땅이 강제 수용됐을 뿐이다, 내곡동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2005년 측량 현장에 안 갔다’라는 주장과 박영선 후보의 “당시 현역 시장으로서 이해종들과 관련이 있으며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반박 중 어느 한 쪽은 분명히 진실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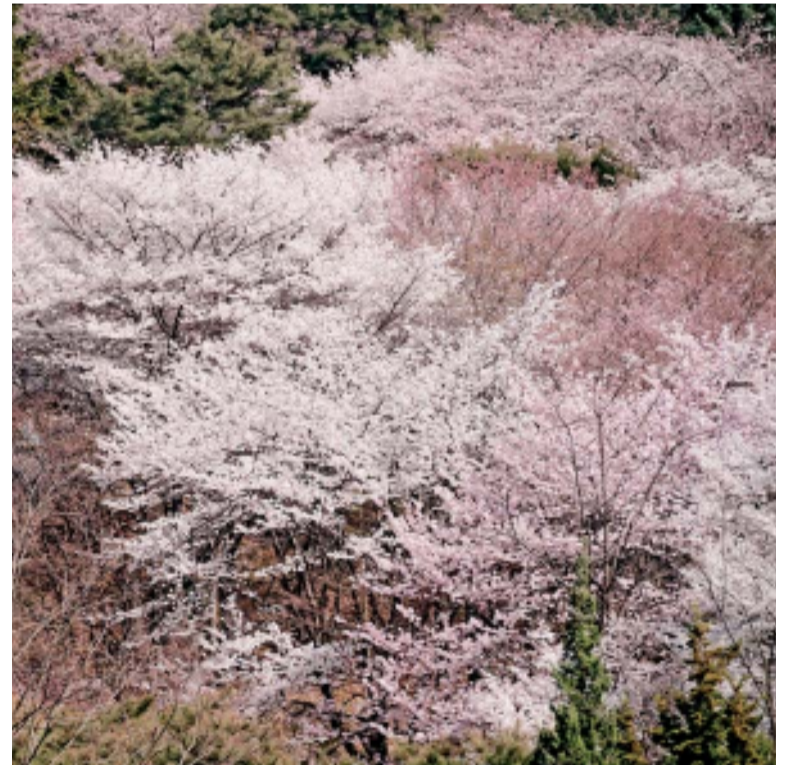
비단 선거에 도전장을 낸 후보들만 주인공 A와 같을까. 과연 선거 시즌에만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질까. 아니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정치권에선 365일이 만우절이다. 오죽하면 정치인들을 향해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을까. 최근만 해도 떠오르는 사례들만 수두룩하다. 한 정치인의 과거 발언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 보자.

“임대차 관련 큰 제도적 변화로 전·월세 시장에서 과도기적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서 뒤로 빠진 적이 없다.” 모두 지난해 8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했던 말이다. 당시 김 실장은 임대차 3법을 강행하며 국민에게 법으로 5%를 강제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국가 주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은커녕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나 올려받으며 잇속을 챙긴 것이다. 이에 대한 변명도 결국 거짓이었다. 그는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도 2억 원 넘게 올라 목돈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부부 통장에는 14억 원가량의 현금이 있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정치인=거짓말쟁이’라는 공식은 부인할 수 없다. 영국에도 ‘강물이 없는데도 다리 놓겠다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속담도 있지 않나. 이들의 낯짝이 두껍다고 해야 할까. 이 정도면 정치인들이 ‘콩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영원히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다. 오죽하면 ‘정직한 후보’라는 제목의 풍자 정치 영화가 개봉했고, 심지어 나름 흥행까지 했을까.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이구동성으로 ‘정직한 정치인’을 록 찍어 말할 수 있는 ‘그 날’이 올까. jscs508@

한 컷



만개한 벚꽃

우리 곁으로 봄이 성큼 찾아왔다. 3월의 마지막 날 서울 서대문구 안산에 만개한 벚꽃이 상춘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올해는 서울 곳곳에서 벚꽃길이 열린다. 양재천·반포천 벚꽃길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18일까지 개방된다. 여의도 봄꽃길도 신청자에 한해 11일까지 하루 360명씩 관람할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그림데 씨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시간이 지나도
공간이 변해도

언제나. 어디서나. 나답게



신혼생활의 그림데 씨



신혼생활의 그림데 씨



아이와 함께 그림데 씨

BESPOKE 그림데 씨

국내 최초 한국표준협회(KSA)의 SA+ 인증 취득

* 그림데 세탁기 (SA 2020.12.29 세탁기) | 동력 최초 인증 (인증번호: AMS-0008) * 그림데 건조기 (SA 2020.12.29 건조기) | 동력 최초 인증 (인증번호: AMS-0009)

가전을 나답게.